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교육학 석사학위논문

설화모티프 시 교육 방법 연구



2013년 2월

부경대학교교육대학원

국어교육전공

추재훈

교육학 석사 학위 논문

설화모티프 시 교육 방법 연구

지도교수 조 동 구

이 논문을 교육학 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3년 2월

부경대학교교육대학원

국어교육전공

추 재 훈

추재훈의 교육학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13년 2월 22일



주심 문학박사 송 명 희 (인)

위원 문학박사 김 남 석 (인)

위원 문학박사 조 동 구 (인)

목 차

* Abstract	v
I. 서론	1
1. 연구목적	1
2. 선행 연구 검토	3
3. 연구방법 및 절차	9
II. 본론	13
1. 2009 개정 『문학』 교과서와 설화모티프 시	13
가. 설화모티프 시 수록 현황	17
나. 서정주의 설화모티프 시와 수록 교과서 분석	20
1) 서정주 시와 설화 모티프	20
2) 수록 교과서 분석	23
2. 설화모티프 시 교육의 의의와 방법	29
가. 설화모티프 시 교육의 의의	29
나. 설화모티프 시 교육의 방법	35
1) 설화모티프 시에 수용된 모티프 찾기	40
2) 설화모티프와 시에 반영된 내용 비교·분석	40
3) 설화모티프의 다양한 활용과 확장	42

3. 설화모티프 시 교육의 실제	42
가. 설화모티프 시 수업 모형 및 교육 방안	42
1) 설화모티프 시 수업 모형	42
2) 교육방안	52
나. 설화모티프 시 교수·학습 지도안과 수업의 실제	54
- 「견우의 노래」를 중심으로	
1) 「견우의 노래」에 대한 이해	54
2) 교수·학습 지도안	59
3) 수업의 실제	63
Ⅲ. 결론	79
* 참고문헌	82
* 국문초록	86



<표 목차>

[표-1] 2009개정 문학 교과서 설화모티프 시 수록 현황	18
[표-2] 서정주 시집의 설화모티프 시 수록 현황	21
[표-3] 2009 개정 문학 교과서 서정주의 설화모티프 시 학습목표 ·	23
[표-4] 설화모티프 시 교육 방법의 틀	39
[표-5] 창의성 계발 학습 모형	43
[표-6] 반응 중심 학습 모형	45
[표-7] 내면화 중심 교수·학습 과정	48
[표-8] 설화모티프 시 수업 모형	51
[표-9] 설화모티프 시 단원 설정 예시	58
[표-10] 설화모티프 시 교수·학습 지도안	59
[표-11] 설화모티프 시 주요내용 확인 및 서사 과정 분석 예시	64
[표-12] 수용한 설화 제시 및 전개과정 찾기 예시①	66
[표-13] 수용한 설화 제시 및 전개과정 찾기 예시②	66
[표-14] 설화모티프 시와 설화모티프의 비교·분석예시	67
[표-15] 설화모티프 시에서 작가가 주목해서 변용한 부분 찾기 예시	68
[표-16] 상상력(아이디어)나누기 예시	69
[표-17] 「견우의 노래」와 관련된 다른 작품 예시	70
[표-18] 상상력(아이디어) 생성단계 예시	71
[표-19] 내면화 펼쳐 보이기 예시	72
[표-20] 내면화 수직적 심화단계 예시	73
[표-21] 반응 명료화 및 반응 심화 단계, 아이디어 적용 단계 예시	74
[표-22] 교사의 인지적 평가지 예시	75
[표-23] 자기평가표 예시	76
[표-24] 모둠원 및 동료학습자간 평가표 예시	77

**STUDY ON POETRY TEACHING METHOD
BASED ON FOLK TALES**

Chu, Jae Hu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Pukyong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oday's literary teaching should be an important method not only to understand the tradition the directing point of Korean literature, but to perceive the literature as a universal form of culture. At the same time, it should be an important tool to take a overall look at the life of Koreans. For this, 'folk tales' play a significant role in comprehending Korean activities and the context in them, and provide a chance to understand the literary tradition. It also contribute to embodying the process and totality of life as understanding the literature as a dynamic structure and the distinct features of national literature.

'Folk tales' are an important studying material in the today's literary teaching for the learners to understand and embody the process and totality of life. Especially, 『The Heritage of the Three States』 and 『The Chronicles of the Three States』 reflect the spirits and the life of our nation, and the folk tales contained in them were modified similarly in terms of the story structure and materials, and then have been handed down for a long time.

One of the modified genres, poetry based on folk tales is a teaching material to achieve the aim of today's Korean education. The learners raise their ability to analyze the literary works through poetry, and increase 'creativity',

confirming how the contents of folk tales are changed into the modern poetry.

On the other hand, the learners can experience various materials in the process where they actively understand the meaning of poetry based on folk tales. Furthermore, poetry teaching based on folk tales should offer an opportunity of imagination and expression to create new works. This is the important value lying in poetry based on folk tales.

Today's poetry teaching consists of 'poetry genre integrated teaching method'. Therefore 'poetry teaching method based on folk tales' should be established with the value and meaning included in poetry based on folk tales. To realize this, the 'appreciation' of 'various stories' where the learners can contact with many story materials and motive should be preceded. In other words, poetry teaching method based on folk tales should be planned in order that the learners confirm how it is changed in the newly created works and increase creativity.

In the body-1, I looked into how many works containing poetry based on folk tales are included in the 『literature』 textbook, the revised edition of 2009, and analyzed the poetry limiting to 'Jeongjoo SEO'. I also confirmed the problems of the current poetry teaching method and suggested the educational basis of poetry based on folk tales through the unit goal and learning activity in an each textbook.

In the body-2, I suggested the new poetry teaching method based on the problems shown in the previous chapter. For this, I discussed the poetry teaching method based on folk tales via 'experiencing materials', internalization.

I chose 'Gyunwoo's song' by Jeongjoo SEO based on the folk tale, 'Gyunwoo and Jingnyuh' with the following reasons: first, students are familiar with it; second, the process in which the folk tales are modified and accepted into the poetry based on them is distinct; third, it's appropriate to analyze the inherent elements of the works-speaker, listener, and background; fourth, it's

easy to utilize the various materials and see the educational methods and effects that expand the learner' experience.

In the body-3, I applied the learning models and methods to 「Gyunwoo's song」 on the basis of the foregoing poetry teaching method based on folk tales. I made the guidance plans and proposed the example related to the actual teaching. The guidance plans include the 'understanding the contents of poetry based on folk tales→ suggesting the accepted folk tales or searching the development process→comparing the accepted poetry with poetry based on folk tales and analyzing them→finding the parts that the authors had pointed out and changed→experiencing the various usage of the materials'

To sum up, the objective of this thesis is to systematize the poetry teaching method based on folk tales. I have tried to suggest the internalization centered learning method, so-called 'experiencing materials' to expand creativity using this method. Besides I have tried to study poetry teaching method based on folk tales that can boost imagination and creativity, and by extension, contribute to 'creating cultural value.'

I. 서론

1. 연구목적

2011년 교육과학기술부의 고시에 따르면 국어교육의 목표는 ‘국어활동과 국어와 문학을 총체적으로 이해하고, 국어활동의 맥락을 고려하여 국어를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하며, 국어를 사랑하고 국어문화를 누리면서 국어의 창의적 발전과 국어 문화 창조에 이바지할 수 있는 능력과 태도를 기른다.’¹⁾는 것이다. 이는 오늘날 국어교육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어’, ‘문학’, ‘교육’의 세 개념이 교육현장에서 조화롭게 실현되어야 함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어 교육’에 있어 ‘문학’이 차지하는 위치와 그 의미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세계가 자본주의 경제 구조로 전면 재편된 근대사를 기반한 ‘문학’이 ‘국어’와 ‘교육’에 구체적으로 봉사하며, 근대국가의 가장 토대가 되어야 할 ‘국민’이라는 공동체를 만들어내고 집결시키는데 가장 내밀한 이데올로기적 장치로 작동했음은 이미 문학사 연구에서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바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치적 논의를 뛰어넘어 인류가 보편적으로 추구해야 하는 삶의 진실과 전언들을 이해하는 능력을 함양한다는 차원에서 ‘국어교육’과 ‘문학’의 관계는 무엇보다 중요하다. 왜냐하면 ‘문학’은 인간 삶의 총체를 재현하는 언어예술이기 때문이다. 나아가 ‘문학 교육’을 통해 배양된 ‘창의적 상상력’이야말로 앞서 언급한 국어교육의 목표들을 실현시킬 수 있는

1) 교육과학기술부, 「2009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 2011년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3면.

가장 튼실한 토대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어교육’의 장에서 ‘문학 교육’에 대한 다각도의 역동적인 교육 방법 연구는 한 순간도 정체되어서는 안 된다.

이에 본고에서는 문학 장르 중 특히 시 장르의 교육에서 ‘창의적 상상력’을 배양하는데 큰 효과를 보인다는 다수의 논의들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설화를 모티프로 한 시가 가지는 다양한 효과에 비해 교육적 제재로 적극 활용되고 있지 않음에 문제를 제기하고 본 논문의 첫 번째 연구목적으로 삼고자 한다.

설화는 국어활동과 국어활동의 맥락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구실을 하고, 문학 전통을 찾아 이해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한다. 또한 역동적 구조로서 문학을 파악하고 민족 문학의 특수성을 이해하여 삶의 과정성과 총체성을 체현하는 데 기여한다는 효용론적 의의²⁾를 지닌다. 그래서 현재 문학교육에서도 중요한 학습재(學習材)로 쓰이고 있다. 특히 우리 민족의 정신과 삶이 고스란히 간직되어 있는 『삼국유사(三國遺事)』와 『삼국사기(三國史記)』에 수록된 설화들은 그 내용이 비슷하게 변형되거나 개작되어 오랫동안 이어져 내려왔기 때문에 국문문학의 중요한 소재원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즉, 근원 설화를 바탕으로 고전 소설로 이후 신소설까지 창작되는데 소재원으로 활용되었으며, 시 장르의 소재로도 활용되어 설화 모티프 시 장르가 탄생되는데 초석이 되기도 했다.

이처럼 설화는 국문문학으로써 민족적 역사성과 민족 문화의 고유성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기도 하며, 국문문학을 넘어 세계문학으로 나아갈 수 있는 범인류 보편적 문화의 원형적 이미지들도 보유하고 있는 오늘날 문학의 새로운 보고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본고에서 구체적으로 다루고자 하는 설화모티프 시에 대한 학습을 통해 학습자들은 민족 고유성과 세계

2) 구인환 외, 『문학교육론』, 삼지원, 2009, 356면.

보편성의 경계에서 이루어지는 ‘문학 교육’ 체험이 가능해 질 것이다. 이에 본고는 설화모티프 시 교육 방법을 ‘감상-이해-분석-창작’의 과정 아래 두고, 학습자 자신의 ‘내면화’를 통한 다양한 소재를 체험하고 상상력을 발현하는 기회로서의 교육이 될 수 있는 방안 모색을 두 번째 연구목적으로 삼을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국어교육에서 ‘설화모티프 시 교육’의 중요성을 전제하고 ‘설화모티프 시 교육 방법 및 교육 과정의 체계화’를 목적으로 한다. 특히 설화모티프 시를 교육함에 있어서 전통의 이해와 시의 의미 해석을 위해서 ‘원전 설화’를 활용하여 교육하는 방안을 연구하고자 한다.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 창의력의 능동적인 확장을 위한 ‘소재체험하기’라는 내면화 중심 학습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선행 연구 검토

설화모티프 시 교육적 방법에 관한 연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설화 그 자체에 대한 교육방법 연구, 설화모티프와 시 교육 방법에 관한 연구가 그것이다.

우선 첫 번째, 설화의 문학 장르적 특성과 교육방법에 관한 연구가 있다.

서상현³⁾은 설화교육의 목표와 방법에 대한 현재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설화 교육의 필요성-의사소통의 양방향성, 수용과 창조의 미학을 담고 있어서 정보화 사회를 대비한 언어사용 능력과 의사소통능력을 신장하는데 있어 가장 적합한 교육 기제-과 교수-학습모형을 설화제제 시 쓰기를 중

3) 서상현, 「설화 시 쓰기를 통한 중학교 설화 교육의 한 사례 연구」, 단국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심으로 설화 교육의 효율적 방법론을 제시하고 있다.

모영숙⁴⁾은 설화를 소재로 한 한국 현대시를 설화와 비교, 검토하고 이를 인물, 사건, 인유, 시인의 가치관, 패러디, 재창조라는 주제로 수용한 시들을 분석하고, 각 시가 가지는 시적 특징과 의의를 밝히고 있으며, 현대시의 무궁한 보고라는 점에서 설화에 대한 계승의 필요성을 논하고 있다.

고정연⁵⁾은 현재 교육 현장에서 각각의 영역들은 서로 연관성이 없다는 점을 비판하면서 언어 기능과 문학 영역은 전혀 별개의 것으로 인식되고 있는 실정이나 언어와 문학을 통합적으로 교육하는 바람직한 방법으로 구현되는 문학이라는 설화문학의 효용성과 통합적 교육방법을 제시하고 실제 예를 보여주고 있다.

권선영⁶⁾은 문학의 변화과정이 구술성에 있음을 강조하고, 구술성을 최대한 살린 설화 교육을 통해 설화문학을 제대로 알게 하고, 그 가치를 인식하게 하는 동시에, 설화 자체에 대한 교육 외의 부수적 교육 효과까지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제시하고, 생활 속의 문화, 생활 속의 설화로서의 교육 방법을 제시하면서 창작 교육에까지 확대하고 있다.

설화 교육은 그 자체로서도 중요하다. 그렇지만 설화의 성격이나 가치로 볼 때, 단순히 설화 자체를 교육하는 것보다 설화를 통해 새로운 작품에 대한 영감을 얻고 다른 영역이나 문학 장르의 통합적이고 상호교섭적인 '설화'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설화'교육은 다양한 작품에 대한 화소(motif)로써의 가능성과 잠재성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고정화⁷⁾와 장석규⁸⁾는 설화를 쓰기 활동, 말하기·듣기 활동과 관련시켜

4) 모영숙, 「설화를 소재로 한 한국 현대시 연구」, 전북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5) 고정연, 「설화의 통합적 교육방법 연구-아기 장수 우투리를 중심으로-」, 고려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6) 권선영, 「구술성을 바탕으로 한 설화교육」, 이화여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교육 방안을 살펴보았다. 구비문학은 그 속성상 누구나 쓸 수 있고 말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해서 이를 표현 교육의 장에 끌어들여 학습자의 표현 능력 신장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음으로 설화모티프와 시에 관련된 연구다.

공광규⁹⁾는 현대시의 설화 수용 방법에서 선행텍스트의 서사 모형을 따랐는가 그렇지 않았는가, 새롭게 해석했는가를 유형화하여 살펴보면서 설화 수용의 의의를 설명하였고, 여러 작가 중 서정주는 설화 수용함에 있어 초기에는 설화의 내용을 충실히 수용했으며, 후에는 설화의 내용을 압축하거나 핵심 화소를 취하여 고도의 은유를 사용한다고 설명한다.

권순아¹⁰⁾는 설화모티프 중에서도 <춘향설화>의 경우 서정주, 박재삼, 김영랑, 전봉건의 작품을 통해 인지도 높은 작품을 가지고 상호텍스트성을 활용하여 언어활동을 통합한 교수모형을 제시하고 있다.

노현중¹¹⁾은 설화모티프 중, ‘춘향전’의 서사 장면들을 정리하고, 절정에 이르는 옥중장면을 현대시에서 김영랑, 박재삼, 서정주, 송수권, 강은교 등이 어떻게 형상화하였는지를 보여주고, 다양한 현대적 변용의 가능성을 제시해 주고 있다.

김경복¹²⁾은 설화모티프가 시에 수용될 때의 기능과 가치의 측면에 주목하여 계몽적 측면과 전통적 측면으로 수용목적을 나누고, 한국현대시의 설

7) 고영화, 「다시쓰기'활동의 비평적 성격에 대하여」, 『문학교육학』 3, 대학사, 1999.

8) 장석규, 「구비문학 교육 현실의 진단과 처방」, 『문학과 언어』 21, 문학과 언어학회, 1999.

9) 공광규, 「현대시의 『삼국유사』 설화 수용 방법」, 『너머』, 통권 2호, 2007년 가을, 296~324면.

10) 권순아, 「현대시의 설화수용 양상과 교수법 연구-춘향설화, 처용설화, 지귀설화 수용을 중심으로-」, 성신여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11) 노현중, 「현대시에 나타난 ‘춘향’모티프의 수용 양상 연구-옥중(獄中)장면을 중심으로」, 아주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12) 김경복, 「한국 현대 설화시(說話詩)에 대한 소고(小考)」, 『현대문학이론연구』, 현대문학이론학회, 1998.

화 수용의 의미를 국권상실에 따른 민족 동질성의 확보와 좌절된 현실의 돌파구와 인식론적 단절의 극복 논리로서 반근대성을 위한 수용양상을 보인다는 것을 논하고 있다.

박화선¹³⁾은 신동엽의 시에서 드러나는 설화인 곰나루 설화, 아사달 아사녀 설화, 서동설화를 중심으로 신동엽의 시에 수용된 양상을 분석하고 있으며, 성과로써 동일성 회복, 백제정신의 구현, 시적 공감의 확대, 서사적 흥미와 장시화(長詩化)를 이루었다고 논한다.

설화모티프와 시에 대한 연구는 원전의 변형을 통해 새로운 작품을 생산하고 창작할 수 있는 재료가 될 수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설화모티프를 통해 다양한 내용과 소재의 변형을 통해 현대의 문화가치 창출을 위한 무궁한 소재원임을 증명해주고 있다. 또한 설화모티프 시 교육 또한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루어져야한다고 강조한다.

설화모티프 시 교육 방안에 대한 연구 중에서 서정주 시의 설화 수용에 관한 연구는 대다수를 차지할 정도로 많다. 대부분 연구의 변모양상의 공통점은 서정주의 시를 ‘동양’, ‘고향’, ‘사랑’ 그리고 ‘신라’로 구분하여 논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열규¹⁴⁾는 서정주 시가 신화나 속신적 속성과 강한 관련성이 있다고 논하면서 서정주 시의 ‘아니마·문디’적 세계관—서정주에게 탈자연적인 세계를 열어준 대모신들 즉, 영매자(靈媒者)에 의해 주어진 통합적 우주관을 가진 세계로서 대립의 통합, 상극의 극과 극끼리를 잇는 역설의 통합적 세계관을 의미한다. 김열규는 「국화옆에서」로 하여금 아니마·문디가 실현되었다고 말하고 있다.—과 ‘범유론(汎有論), 범물론(汎物論)’—시간과 공간을 넘어서서 어느 하나의 존재가 만물 속에 편재하는 범신론(汎神論)의 반대

13) 박화선, 「신동엽 시의 설화 수용 연구」, 동아대학교 교육대학원, 1995.

14) 김열규 외, 『미당연구』, 민음사, 1994.

적 개념으로 신화적 시공, 즉 무의식의 세계를 말하는 것이다.—의 성격을 분석하고 있다.

김윤식¹⁵⁾은 역사와 예술이 미분화된 시대의 산물로서 『삼국유사(三國遺事)』를 언급하며, 서정주시가 추구하는 신라정신이 근대문학을 벗어나 ‘신화’의 상태를 지향하고 있다고 보고 그것을 비판하고자 했다.

이성희¹⁶⁾는 설화의 서정성과 서사성을 검토하고 한국 현대시에서 설화 수용의 일반형을 찾고, 서정주의 시를 시기별로 구분하여 앞서 제시한 변모양상으로 나누어 『신라초(新羅抄)』의 설화 수용 시편이 서정주 개인 및 한국 시 정신의 확대라는 의의를 밝히고 있다.

이병숙¹⁷⁾은 서정주의 시집 여섯 편에서 나타나는 설화 수용과 의의를 살피고, 주제별로 교수법을 나누어 텍스트를 비교 분석하고 교육 현장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는 교수-학습 모형을 참고하여 「추천사」의 교수-학습 모형을 제시하고 있다.

노경아¹⁸⁾는 제7차 교육과정의 18종 <문학>교과서에 실린 서정주의 모든 시의 설화 모티프를 분석하고 비중 있게 다루고 있는 작품의 ‘학습활동’을 분석해 봄으로써 문학 수업의 지향점과 문제점을 제시하고 있다.

오현정¹⁹⁾은 ‘신라’의 의미와 신화적 삶의 시적 가능성을 연구하고, ‘신화적 상상력’과 ‘원형적 동일성’을 회복할 수 있는 방안 및 설화의 시 계승 가능성을 제시해주고 있다.

김은진²⁰⁾은 설화를 통한 상상력 발휘를 통해 설화 수용 시 교육을 통해

15) 김윤식, 「역사의 예술화-신라정신이라는 괴물을 폭로한다」, 『현대문학』, 1963. 10.
16) 이성희, 「서정주 시의 설화 수용에 관한 연구 - 『新羅抄』를 중심으로」, 동국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17) 이병숙, 「서정주 시 주제의 교수법 연구 -설화모티프 시를 중심으로-」, 성신여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18) 노경아, 「설화모티프 시의 교육 방안 -제7차 <문학> 교과서의 서정주 시를 중심으로-」, 단국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19) 오현정, 「서정주의 설화시 연구」, 한국교원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1.

학습자가 시에 좀 더 가까이 다가설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김은진과 서상현의 연구를 제외한 나머지 연구에서는 학습자의 설화모티프 시의 의미 파악과 이해 및 창의력 확장에 대한 교육적 방안에 고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실제적인 설화모티프 시의 교수-학습 방법을 제공하고 있지 않다. 모영숙과 권선영의 연구 또한 다양한 학습방법을 제시하고 있으나, 본질적인 설화모티프 시의 '이해'라는 측면에서는 다소 설득력이 떨어진다.

설화의 교육적 필요성에 대해서도 연구자들이 인식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것을 어떻게 학습자들에게 가르쳐야 하는 지에 대한 연구가 아직은 미흡하다. 시 교육은 '해석'과 '이해'라는 본질적인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하나, 선행연구는 설화모티프 시를 교육함에 있어 '시어'의 '해석'조차 이루어지지 않는 과정에서 다양한 교육적 시도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 연구에서도 그렇듯 지금까지 시 교육 연구에서 언어의 문제에 접근해 온 방식은 대체로 두 가지 방향으로 수렴된다. 하나는 텍스트 자체의 기호적 소통관계에서 바라보는 관점이고, 다른 하나는 그 텍스트가 생산해 내는 담론의 차원에서 바라보는 관점이다.²⁰⁾ 시 교육은 시 읽기의 맥락을 고려하는 7차 교육과정에서부터 후자로 중심이 이동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시 교육 내에서 텍스트 자체의 해석적 의미와 학습자의 수용 및 생산적 의미 사이의 간극이 존재하게 된 것을 통해 볼 때, 시 교육의 본래적 목표로 다시금 제자리로 돌아와야 한다.

시 이해의 초석은 시의 내용을 이해하고 의미를 파악하는 능력에 있다. 이를 위해 단기적으로는 시를 쓰고 활용하는 능력보다 의미 파악과 이해하는 방법을 교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 과정이 이루어지고 난 후에 비로

20) 김은진, 「서정주 시의 설화 수용 양상과 교육적 활용 방안에 대한 연구: 『新羅抄』를 중심으로」, 고려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1.

21) 박운우, 『현대시와 문화교육』, 푸른사상, 2011, 116면.

소 다양한 문화적 차원으로 변용하고 활용할 수 있는 학습자로 성장할 수 있게 하는 시 교육이 될 수 있다.

서정주의 시는 설화모티프를 활용하여 다양한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이를 시의 내용 영역 안에서 ‘이해’와 ‘해석’으로 접근하여 교육하려는 연구나, 학생들에게 설화모티프 시 교육적 측면에서 교육 방법을 고찰한 연구 또한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설화모티프 시의 교수-학습방법을 정립하는 것을 최종 목표로 한다. 이 방법을 통해 학습자들이 실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시 내용 ‘이해’를 도울 수 있는 방법 및 창의성과 상상력을 확장시킬 수 있는 설화모티프 시 교육 방안을 연구하고자 한다. 또한, 실제 적용하는 과정을 거쳐 설화모티프 시의 교수-학습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3. 연구방법 및 절차

설화모티프 시는 옛 이야기가 현대 사회에서 다양하게 변모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해준다. 학습자는 옛 이야기를 다양하게 활용하기 위해 원전 설화에 대한 읽기(정독(精讀))를 선행해야 한다. 여기에서 설화모티프 시 교육 방법의 초석을 찾을 수 있다. 설화모티프 시는 학습자를 통해서 더욱 다양하게 변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그러므로 연구자는 설화모티프 시를 통해 읽기 학습을 선행하고 이를 통해 상상력과 창의력을 확장할 수 있는 교육 방법을 연구하려 한다. 이것이 이 논문의 시작이고, 이 논문에서 연구해야 할 부분이다. 학습자는 문학 장르별 성취기준에 도달하면 학교 국어 교과서에 실려 있는 작품 이해와 해석에만 그쳐서는 안 된

다. 달리 말하면 학습자는 설화모티프 시에 대한 성취기준에 도달하면, 다른 설화모티프 시에도 적용하여 작품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학습자의 입장에서 다양한 작품에 적용하여 작품을 분석할 수 있는 실제적 교수-학습 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우선 II-1에서는 2009개정 『문학』 교과서의 설화모티프 시 수록 작품 수용양상을 살펴보고, ‘서정주’시로 한정한다. 이를 바탕으로 각 교과서별 작품에 대한 수록 단위 목표 및 <학습활동>의 내용을 살펴보고, 현행 교과서의 설화모티프 시 교육 방안의 문제점과 설화모티프 시의 교육적 기초를 논해보려고 한다. 그 이유는 교과서를 분석하고 그에 대한 문제점을 짚어보아야만 설화모티프 시에 대한 교육 방안을 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연구자는 설화모티프 시를 교육할 때 주요한 부분과 현행 교과서에서는 어떤 목표를 설정하여야하는 지에 대한 본질적인 부분과 설화모티프 시에 대한 실제적 교육 방안을 살펴보려한다. 이를 통해 본고에서 논의하고자 하는 설화모티프 시의 교육 방법의 기초를 세우고자 한다.

II-2에서는 앞의 장에서 살펴본 『문학』 교과서에서 드러난 설화모티프 시 교육의 문제점을 바탕으로 설화모티프 시 교육의 의의와 방법을 살펴보려한다. 또한 연구자는 설화모티프 시의 개념을 정립하고, 설화모티프와 설화 모티프 수용의 일반적 패턴을 통해 설화모티프 시 교육의 가치를 살펴보고, 설화모티프 시 교육의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설화의 구조 및 화소(모티프) 분석, 설화모티프 시에 반영된 설화의 내용을 비교·분석하여 ‘소재체험하기’를 통한 설화모티프의 다양한 활용과 확장을 가능하게 하는 교육적 방법을 논해보려고 한다. 설화모티프 시 교육은 원전의 기본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교육 방안은 이와 더불어 설화모티프 시의 원전 설화를 함께 분석하고, 설화모티프 시의 내용과 비교하는 과정을 통해서 설화모티프 시가 원전 설화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변용되었는지

확인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학습자가 스스로 설화모티프의 다양한 소재의 활용과 확장을 경험하는 방법이다. 또한 설화모티프 시가 갖는 교육의 의의이자 핵심이다. 학습자는 이러한 과정의 설화모티프 시 교육 방안을 바탕으로 능동적으로 또 다른 설화모티프 시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게 된다.

서정주의 시를 선택한 이유는 15권의 시집을 통해 설화를 반영하거나 수용하여 창작한 작품의 비중이 높고, 설화를 통해 작가로서의 상상력을 충분히 발휘한 작가이며, 또한 한국 현대 시사에 위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정주의 시 중에서 「견우의 노래」로 설화모티프 시 교수-학습 방안을 적용하려는 것은 학습자에게도 친근한 ‘견우와 직녀’ 설화모티프를 바탕으로 창작했기 때문이라는 점, 학습자들이 좀 더 친근하게 거리낌 없이 작품을 학습하고 또 다른 문학 장르를 창작해 볼 수 있는 좋은 학습재가 될 수 있다는 점, 설화와 설화모티프 시의 공통점이나 차이점 및 설화모티프 변용 및 수용 과정이 비교적 두드러진다는 점, 화자 및 청자를 쉽게 찾을 수 있다는 점, 배경이나 상황이 집약되어있으므로 비교·분석하기에 적절한 점 때문에 학습자는 다양한 소재 활용과 학습자의 체험을 확장할 수 있어 설화모티프 시 교육적 방법 및 효과를 살펴보기에 적절한 작품이기 때문이다.

II-3에서는 앞에서 제시한 설화모티프 시 교육 방안을 기초로 수업 모형 및 교육 방안을 서정주의 「견우의 노래」에 적용해 보려고 한다. 연구자는 모티프의 변형을 통해 창의력 계발 학습모형과 반응 중심 학습모형을 바탕으로 ‘설화모티프 시의 내용이해→수용한 설화 제시 및 전개과정 찾기→수용된 시와 설화모티프의 비교·분석→작가가 주목해서 변용한 부분 찾기→소재체험하기’의 내면화 중심 학습 방안을 정립하고, 「견우의 노래」에 적용해보려고 한다. 이를 통해 학습자는 장르변화를 경험하고, 화자, 소재,

언어 및 서사구조의 변형을 통해 최근 문학 교육의 목표이자 지향점인 창의적인 문화 콘텐츠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한 학습자로 성장할 수 있다.

‘소재체험하기’는 학습자의 내면화 과정을 통해 작품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다양한 아이디어 교환을 통해서 새로운 창작활동에 대한 내적동기를 유발할 수 있으며, 문학 교육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이다. 또한 설화모티프 시 교육 방안은 새로운 창작물을 생산할 수 있는 창의력과 상상력을 발현(發顯)할 수 있는 기회제공의 장으로써 충분한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실제적으로 다양한 설화모티프 시에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



II. 본론

1. 2009 개정 『문학』 교과서와 설화모티프 시

설화²²⁾가 담고 있는 서사구조에는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화소(motif)가 있다. 여기서 화소(motif)란 전승을 지속시키게 하는 최소단위로 이야기를 이루는 핵²³⁾이라 할 수 있다. 이야기는 주제나 소재에 따라 대략 15개 항목으로 분류될 수 있다. 즉, 천국·다른 천인의 사건들, 신선과 신비한 스님, 인간과 그들의 활동, 유령과 악귀들, 요정과 도깨비, 거인과 난쟁이, 마술사와 점쟁이, 용과 용궁, 동물과 조류, 곤충과 충류(蟲類), 물고기와 패류(貝類), 초목, 바위와 산, 강, 호수와 바다, 알(卵)에 관한 이야기들이 그것이다. 물론 이 분류가 완벽한 것은 아니다. 다른 유형들이 발견될 수도 있다.²⁴⁾ 이 모든 유형들은 자주 상호 혼합될 수 있어서, 종종 그들 사이에 분명한 경계를 짓기는 어렵다.

설화는 이러한 화소를 바탕으로 이야기 구조를 지니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특징이다. 무엇보다 설화가 갖는 ‘내러티브’ 즉, 서사구조는 다양한 소재

22) 설화(說話)란 글자 그대로 ‘말로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라는 말이다. 입에서 입으로 전해 내려오면서 한 민족의 사상과 감정, 신앙, 세계관, 생활, 풍습 등이 그 속에 녹아져 있다. 그러므로 그 개념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설화는 ‘이야기’다. 즉, ‘사실이 아니라’는 의미가 내재되어 있다. 둘째, 설화는 ‘구전(口傳)’되는 것이다. 셋째, 설화는 ‘개방’적인 이야기다. 넷째, 설화는 ‘민중’의 이야기다. 다섯째, 설화는 ‘보편’적 이야기다. (M. 엘리아데, 이은봉(역), 『신화와 현실』, 성균관대 출판부, 1985/ V. 프로프, 박전열(역), 『구전문학과 현실』, 홍성사, 1990/ 장덕순, 『한국설화문학 연구』, 박이정, 1995, 김선학, 「설화의 시적 수용 -질마재 신화를 중심으로-」, 『한국문학연구』 제3집, 1981, 242면).

23) 조동일 외, 『구비문학개설』, 일조각, 2006, 35면.

24) 강제철, 『한국설화문학의 탐구』, 단국대학교 출판부, 2009, 72~73면.

의 활용 및 수용으로 새로운 작품을 창작할 수 있는 원천이 된다. 또한 설화는 서사적 구조 즉, 인물, 사건, 배경으로 3가지 요소를 갖추고 있으며, 그 구조 안에 우리 민족의 전통과 풍습, 민중의 의식과 가치관 등이 반영되어 있다. 설화는 이러한 점에서 소설의 근원이 된다고 할 수 있다. 학습자는 같은 맥락에서 근원설화에서 판소리 사설로 판소리계 소설, 신소설로 변화하는 과정을 거쳐 형성된 설화모티프 작품을 감상하고 학습함으로써 현대사회에 필요한 다양한 가치와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효녀지은’ 설화는 판소리 사설인 ‘심청가’로, 고전 소설 ‘심청전’, 이후 신소설인 ‘강상련(江上蓮)’으로 근원 설화의 내러티브를 바탕으로 서사구조를 지닌 작품으로 변용해 이야기 문학으로 창작된 작품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현대적으로 다양한 변용의 가능성을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아울러 설화는 한 민족의 개별적 민족의식으로서 발생하는 것이며, 이 설화를 가지고서 그 민족은 인류의 보편적 의식으로부터 벗어나며, 그것 덕분에 민족이 바로 이 민족이 되고 또 언어에 의한 것에 못지않게 다른 모든 민족들과 상이한 그 민족의 개별적 민족의식으로서 발생하는 것²⁵⁾이라는 점에서 개인이 존재의 근원을 찾아가는 과정으로서의 의의를 지닌다. 또한 인간 본연의 의식이 자신의 본질에 의해 확고히 되는 계기가 바로 설화다. 즉, 설화는 우리가 오랜 세월을 걸쳐 해온 진리에 대한 모색, 의미에 대한 모색, 의미 있음에 대한 모색을 뼈대로 하는 이야기다. 이러한 모색을 위해서는 도움이 필요하다. 여기서 도움이라는 것은 영원과 신비의 의미에 대한 이해와 누군가를 바로 알아야 할 때 필요한 것이다. 이 긴 삶의 살아갈 때 바탕이 되는 것이 설화라 할 수 있다. 우리 인간이 궁극적으로 찾고자 하는 것은 삶의 의미다. 삶에 대한 이해는 설화의 이해에서 출발한다. 설화는 인간의 삶의 영적 잠재력을 찾는 데 필요한 실마리인 것이다. 설화

25) 프리드리히 W. J 셸링, 김윤상 외 역, 『신화철학』 1, 나남, 2009, 108면, 276면.

는 사람들에게 내면으로 돌아가는 길을 가르쳐준다. 설화를 읽으면 사람들은 상징의 메시지를 해독한다. 여러 설화를 읽으면 다양한 문화적 경험과 삶의 지혜에 대해 배우게 된다²⁶⁾는 것이다.

일찍이 그림(Grimm)형제는 ‘민담은 시적(詩的)’이라고 하고 볼핀츠는 ‘전선은 시적(詩的)자료의 보고’라 하여 신화, 전설, 민담의 설화가 모두 문학 내지는 예술의 원천²⁷⁾이라 하였으며, 신화의 생명은 항상 스토리라는 시적 생명이지 제시된 공리(公理)라는 교훈적 생명이 아니라²⁸⁾고 했다. 즉, 설화는 문학에 영향을 준다는 의미이다. 문학에는 두 가지 현세적 차원이 동시에 존재한다. 문학은 어떤 특정 기간의 순간에 역사적 사실로서 존재하고, 문학은 원형적 인물, 이미지, 상징, 장면 구성의 영원하고 반복적인 표현으로서 역사적인 시간의 차원 밖에 하나의 연속체로서 존재²⁹⁾하는 것이다.

‘신화적 구조’는 현실과 상상력이 융합되어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문학에 있어 여러 가지 의미를 제공해 준다. ‘신화적 구조’란 신이 개입된 세계를 수직체계로 보고 인간 중심의 현실 공간을 수평체계로 볼 때, 두 체계를 다 만족시켜주는 것을 말한다. 즉 수직체계에서는 환상, 상상력이 주축을 이루며, 신화의 신비 공동체 의식의 상황에서 받아들일도록 하는 힘, 즉 ‘신화적 상상력’을 작용시키는 원인을 제공하며, 수평체계에서는 주로 인간 세계와 관련된 경험이나 인식이 작용한다. 수직 체계는 절대성, 가능성이 작용한다면, 수평체계에서는 생명성, 필연성이 작용³⁰⁾하여 신화를 통한 다양한 상상력의 확장이 가능한 소재원인 것이다.

오늘날의 학문이 경계를 뚜렷하게 하고, 전문화되는 상황 속에서 삶의

26) 조셉 캠벨·빌 모이어스 대담, 이윤기 옮김, 『신화의 힘』, 이끌리오, 2007, 29~38면.

27) 장덕순, 『한국설화문학연구』, 박이정, 1995, 46면, 303면.

28) Northrop Frye, 김병욱 외 역, 『문학과 신화』, 대현원서출판, 1981, 90면.

29) S. N. Grebstein, 이은봉 외 역, 「신화비평이란 무엇인가」, 『문학과 신화』, 대람, 1981, 32면.

30) 정신재, 『한국 현대시의 신화적 원형 연구』, 국학자료원, 1995, 41~43면.

지혜와 본질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 것이 바로 신화 즉, 설화이다.

학습자들은 이러한 설화를 통해 이야기를 배우며, 그 안에 담겨진 삶의 진실과 마주하게 된다. 또한 개인의 내재적이고 근원적인 의미를 찾을 수 있고, 삶의 가치와 존재의 이유를 찾을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할 수 있다. 이러한 학습을 통해 학습자에게 내재된 상상력과 창의력을 깨울 수 있다. 이것이 설화모티프 작품을 학습자에게 가르쳐야 하는 이유다. 학습자 내면의 의식과 삶의 의미를 깨닫게 할 수 있는 흥미로운 방법이 바로 신화 즉, ‘설화’이다.

이러한 설화가 현대적으로 변용될 때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수용 방식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이야기의 화소 즉, 소재를 어디에 무게를 두느냐하는 전경화, 감정 표현 방식의 변화를 주는 동일화, 시라는 문학 장르에 있어 가장 핵심인 운율을 형성하는 방식의 다양성을 보여주는 운율화³¹⁾가 그것이다.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설화모티프를 다른 문학 장르에 수용할 때 형식적인 변화와 내용적인 변화로 나누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단순히 이 세 용어만 가지고 설화모티프 시를 교육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설화’라는 장르적 특성에 비추어 볼 때, ‘동일화’나 ‘율격화’는 다른 자유시에서도 활용되고 또한 시 장르가 갖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라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일반적 소재를 사용한 자유시를 통해서 ‘동일화’나 ‘율격화’는 교육이 충분히 가능하다.

설화를 활용하여 장르의 변화나 소재를 새롭게 보여줄 때, 어느 것에 주목하느냐에 따라 장르가 달라지고, 정서 표현이 달라질 수 있다. 작품의 창

31) 전경화, 동일화, 율격화는 학습에 관련된 용어로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설화시를 교육하는 방법에 적용하기 위해 전경화를 ‘소재체험하기’, 동일화를 ‘정서체험하기’, 율격화를 ‘운율체험하기’로 학습과정에 적절한 용어로 바꾸어 설명하고자 한다. ‘전경화’라는 설화 수용의 형식적 측면을 ‘소재체험하기’라는 용어로 제시하여 설화모티프 시 교육 방안에 사용하고자 한다. 오정국, 앞의 책, 27~34면.

작은 분명 작가의 개성적 표현의 장이자 소통의 통로다.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세련되게 깔고 담은 표현 방식으로 전달해야 그 의미가 고스란히 독자나 청자에게 전해진다.

이렇게 창작된 설화모티프 시에 대한 교육은 설화를 수단으로 시 교육적 목표를 달성하는 방안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다시 말하자면, 설화모티프 시 교육은 인간의 잠재가능성을 계발하여 현대사회에 필요한 인간으로 만드는 의도적인 작용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설화모티프 시의 교육방법은 일반적 설화 수용 원리에서 시작해야 한다. 설화모티프 시 교육에서는 작품의 중심소재, 화자, 운율을 교육해야함은 물론이며, 설화모티프라는 소재활용 측면에 비중을 두어 교육해야 현재 국어교육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학습자는 작품을 정독(精讀)하고, 원전 설화의 내용을 확인하면서 소재의 수용과 변형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 학습하게 되고, 이를 통해 학습자의 경험을 떠올리고 비슷한 경험을 다른 소재에 적용해 봄으로써 상상력과 창의력 함양의 밑바탕을 형성할 수 있게 된다.

그렇다면 설화모티프 시가 수용된 『문학』 교과서를 살펴보고, 서정주의 설화 모티프 시를 중심으로 설화모티프 시 교육 방안에 대해 논해보고자 한다.

가. 설화모티프 시 수록 현황

2009 개정 『문학』 교과서의 설화 모티프 시는 서정주의 시 5편, 윤제림의 시 1편, 김소월의 시 1편, 박재삼의 시 2편으로 총 8편이 수록되어 있다. 그 근원 설화를 살펴보면, ‘춘향설화’³²⁾, ‘견우와 직녀 설화’, ‘홍부와 놀

32) 현대시에서 춘향을 만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은 일이다. 지금까지 확인된 시만 43수에 이른다.(설성경, 앞의 책, 333면에서는 41수라고 나와 있었으나, 연구자가 조사해 본

부 설화', '접동새 설화', 『삼국유사』나 『삼국사기』에 수록된 설화로 나타난다. 설화 모티프 시 수록 작품과 교과서는 아래와 같다.

설화 모티프 시	관련 설화 및 수록 범위	수 록 교 과 서
서정주, 「추천사(鞦韆詞) -춘향의 말1」	고전 소설 『춘향전』의 근원 설화	미래엔 문학 I (윤여탁)
서정주, 「춘향유문(春香遺文) -춘향의 말3」		천재문화사 문학 I (고형진)
서정주, 「견우의 노래」	견우직녀 설화	지학사 문학 I (권영민) 교학사 문학 I (윤석산)

결과 2수를 더 확인할 수 있어서 첨가함) 그만큼 시대와 공간을 초월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아 왔다고 할 수 있으며 다른 의미에서는 춘향이 고전 속에 존재하는 과거의 인물인 동시에 현대시에서도 만나 볼 수 있는 현재의 인물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춘향전과 춘향이의 패러디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현재까지 확인된 시 목록은 다음과 같다.

시 · 시조					
년도	작가	작품	년도	작가	작품
1924	김소월	춘향과 이도령	1976	박희진	한국어를 기리는 노래
1935	김영랑	두견/ 춘향	1977	강우식	탈춤고 돌
1940	김기진	대수풀 우거진 곳 (시조)		문병란	겨울 산촌 인생
1945	노천명	춘향 / 남사당	1981	송수권	춘향이 생각 남원운문
1951	김춘수	집 1	1983		유성규
1969		타령조 1	1984	김정환	사두개인들의 부활에 관한 질문에 답함
1965	서정주	춘향의 말 연작시 3수		송수권	징검다리
1968		석류꽃	1991	조창환	임방울
1962	박재삼	춘향이 마음 연작시 10수		강은교	춘향이의 꿈노래
	김동환	우리 만나던 시절이	1997	이상훈	聖춘향? 性춘향?/ 性춘향? 聖춘향?
1967	전봉건	장시 춘향연가		복효근	춘향의 노래
1970	이태극	소리 8 (시조)	2000	조창환	길없는 물
1972	정원영	황국	2002		
1973	황금찬	고려 청자기 1			
1974	최하림	춘향비가			

서정주, 「수로부인(水路夫人)의 얼굴」	『삼국유사』 권2 - 수로부인	비상교평 문학 I (유병환)
서정주, 「동천(冬天)」	불교 인연 설화	교학사 문학 I (윤석산)
윤제림, 「홍보가」	홍부와 놀부 설화	천재문화사 문학Ⅱ (고형진)
김소월, 「접동새」	접동새 설화	비상교육 문학 I (박영민)
박재삼, 「홍부 부부상」	홍부와 놀부 설화	교학사 문학 I (윤석산)
박재삼, 「수정가」	고전 소설 『춘향전』의 근원 설화	교학사 문학 I (조남현)

[표-1] 2009개정 문학 교과서 설화모티프 시 수록 현황

시를 창작하는 것은 작가이지만 그가 사는 시대의 정신적인 흐름을 놓고서 이해될 수 없을 것이다.³³⁾ 그 시대의 사회적 현실, 곧 집단 의식이라는 것의 표현이 문학작품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당시 사회를 충분히 반영하고, 시대 모습을 간직하고 있는 것이 바로 설화다. 설화는 역사적 배경과 흐름 아래에서 굳어진 작품이라 할 수 있다. 즉 시대의 모습을 가장 잘 반영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또한 설화는 구전되어 오면서 유연하게 변화해왔다는 점에서 문학적 상상력을 충분히 반영하고 새롭게 변형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장르라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설화를 수용한 작품이 등장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설화모티프 시 중에서 서정주 시에 집중해서 연구하고자 한다. 서정주의 위상과 그의 작품의 가치는 이미 높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7차 및 2009개정 문학 교과서에 실린 다수의 작품을 통해서도 고등학교 문

33) 김용직 외, 『문학의 이해』, 방송대 출판부, 1988, 185~186면.

학 교육에서 서정주 시의 위상을 가늠할 수 있다. 서정주는 60여 년간의 창작활동을 통해 방대한 양의 시를 창작하면서 끊임없는 변화를 시도한 시인이며, 초기 서구 지향적 시세계를 추구하다가 이후 동양 혹은 전통 지향적 세계로 전환³⁴⁾하는 서정주의 면모는 그의 설화모티프 시의 변모 양상과 그 맥을 같이 한다.

서정주처럼 시종일관 신화, 전설, 민담 등 그 술한 민간 정승의 숲속을 누벼왔던 시인도 드물다. 초기의 에덴동산이나 이브나 헬렌과 파리스의 설화, 귀족도, 양귀비, 견우직녀와 같은 외래설화는 물론 그 후 제주도 설문대 할망, 지하국대적퇴치설화와 같은 구전설화는 말할 것 없고 단군, 연오랑과 세오녀 등 시조설화, 사소, 수로부인, 천관녀 등의 애정설화, 불승의 애정에 얽힌 설화 등에 이르기까지 시인이 살아오는 동안 보고 들은 이야기가 시의 소재 내지는 메타구조로 다루어지고 있다.³⁵⁾ 이는 시를 통해 세계를 만날 수 있고 시대의 모습을 학습자에게 전달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다양한 설화를 변용한 작품을 많이 남긴 시인도 드물다는 점과 앞장에서 설화의 가치와 의의를 다양한 작품을 통해 보여주는 시인이라는 점에서 서정주의 시가 교과서에 많이 수록된다고 하겠다.

나. 서정주의 설화모티프 시와 수록 교과서 분석

1) 서정주 시와 설화모티프

서정주의 시는 ‘설화적 영원성’이라는 측면에서 설화를 제외하고 논하기

34) 오세영, 「서정주의 영원과 현실」, 『한국문학연구』 제 17권, 1995. 3, 77면.

35) 김은진, 「서정주 시의 설화 수용양상과 교육적 활용 방안에 대한 연구: 『新羅抄』를 중심으로」, 고려대 석사학위논문, 2011, 1~2면.

힘들다. 그의 신라정신이란 고답적인 종교적 초월의 세계나 역사의 하늘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인간적 사랑과 욕망이 살아 움직이는 현세적 삶에 대한 긍정이며 사랑이고, 또한 인간 존중의 정신을 의미한다. 그렇다고 해서 물질적, 대지적인 것에만 함몰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부터 끊임없이 벗어나려는 노력을 통해서 하늘이 표상하는 영원의 세계에 도달하려는 이념지향성을 함께 지니는 것이다. 서정주가 추구했던 신화적 상상력을 통해 원형적인 세계 자체의 복원³⁶⁾은 인간에의 정신에 바탕을 두되, 그러한 것들의 상승과 초월을 꿈꾸는 정신이 바로 신라정신이며 영원주의에 해당하는 것이다.³⁷⁾ 이를 통해 전통적 시 정신을 획득하게 되고, 서정주의 시가 현재까지도 가치를 인정받는 이유라 할 수 있다.

서정주는 「수로부인의 얼굴」과 「노인헌화가」를 통해 설화 전수자로서의 이야기꾼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다. 이 같은 형태의 시를 ‘서술시’라고 불렀는데, 초기 『화사집(花蛇集)』 시편부터 서술에 많이 의존한 서정주는 『신라초(新羅抄)』 시편에서 본격적으로 『삼국유사』나 『삼국사기』 소재 전통 설화에서 취재함으로써 그의 서술시는 전통 서정시로서 정전화된 사례가 된다고 말했다.³⁸⁾ 작품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설화 모티프 시의 비율이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서정주가 전통적 이야기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작품에 반영하려는 의도를 파악할 수 있다.

서정주의 각 시집에서 수용된 설화의 비율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시 집	작품총편수	설화모티프 시	비율(%)
귀족도(1948)	24	2	8.33
서정주 시선(1956)	20	3	15.00
신라초(1960)	38	14	36.84

36) 이광호, 「영원의 시간, 봉인된 시간」, 『작가세계』 제6권 제1호, 1994. 2, 128면.

37) 김재홍, 『한국현대시인연구』, 일지사, 1986, 337~338면.

38) 김준오, 『문학사와 장르』, 문학과 지성사, 2000, 75면.

동천(1968)	50	12	24.00
서정주 문학전집(1972)	55	13	23.64
질마재 신화(1975)	45	45	100.00
학이 울고 간 날들의 시(1982)	113	113	100.00
합 계	345	202	58.55

[표-2] 서정주 시집의 설화모티프 시 수록 현황

서정주의 시에 모태가 되어 있는 설화들은 『삼국유사』, 『삼국사기』, 『수이전』, 『동국여지승람』 등의 문헌 설화는 물론 구전 설화와 외래 설화, 불교 설화까지 그 폭이 매우 넓으며 기법 또한 매우 다양하다. 시인의 위치를 기준으로 시 속의 인물과 자신을 동일시하기도 하고 설화인물과 거리를 두어 진술하여 객관적 위치를 확보하기도 한다.

「추천사」와 「춘향유문」은 판소리 춘향가에서 인물을 차용하여 전경화와 동일화를 통해 작품을 창작했다. 「견우의 노래」는 ‘견우 직녀 설화’를 바탕으로 화자와 청자를 설정하여 작품을 변용했다. 「수로부인의 얼굴」은 『삼국유사』의 ‘수로부인’을 소재로 창작한 서정시다. 수로부인과 노인관계를 통해 ‘신라인의 미의식’을 구현하는데³⁹⁾ 집중하고 있다. 「동천」은 불교의 인연설화를 바탕으로 ‘눈썹’의 상징성을 통해 작품을 창작했다. 이같이 서정주는 다양한 배경 설화를 바탕으로 작품의 보편성과 대중성을 획득하여 독자의 공감을 꾀한다고 볼 수 있다.

설화의 내용별로 보면 시조설화, 남녀 간의 애정, 불승의 행적, 인심이나 일화 등 다양하며 전승 형태면에서도 구전설화, 판소리는 물론 속신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설화의 발생 지역에서도 한국설화뿐 아니라 서구 전래설화와 중국 전래설화 등 다양한 수용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⁴⁰⁾ 그는 자신의

39) 조동일, 『한국문학통사』 1, 지식산업사, 1994, 155면.

40) 임문혁, 「한국 현대시의 전통연구 : 설화의 수용을 중심으로」, 한국교원대 박사논문,

창작의 근원으로 어린 시절 접했던 옛 이야기⁴¹⁾를 자주 언급하고 있다.

어렸을 적 경험 속에서 서정주는 자신의 시적 상상력을 높인 것이다. 그것이 바탕이 되어 다양한 설화모티프 시를 창작해 낼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한다.

서정주는 전통적인 설화를 수용하여 시를 창작했다. 이는 그의 시가 전통의 전승수단의 한 측면으로 볼 수 있음을 설명해주고 있다. 그의 작품이 옛이야기에서 시작된 것이라면, 현재의 학습자도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작품이 바로 서정주의 시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서정주의 설화모티프 시 작품 현황과 수록한 문학 교과서의 학습목표는 무엇인지 살펴보고 그것의 적절성과 타당성을 논해보려 한다.

2) 수록 교과서 분석

2009 개정 『문학』 교과서에 수록된 설화 모티프 시 중에서 서정주의 설화 모티프 시가 수록된 교과서의 단원과 학습목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서정주의 설화모티프시	수록 교과서	단 원 명	학 습 목 표
‘추천사 (鞦韆詞) -춘향의 말1’	미래엔 문학 I (윤여탁)	Ⅲ. 문학의 수용과 생산 2. 다양한 이해,	· 내용, 형식, 표현의 유기적인 연관을 고려하여 작품을 수용할 수 있다.

1992, 35~46면. (박영희, 「서정주 시에 수용된 설화 수용 연구」, 충남대학교 교육대학원, 2009 논문에서 재인용).

41) 어렸을 때부터 옛날이야기를 너무 좋아해서 대여섯 살 때에는 거의 날마다 이걸 이야기 하시기를 좋아하는 내 외할머니한테가 매달려 지냈는데...(중략)...좋은 옛날이야기들 속에는 우리보다 먼저 이 땅에서 살다가 돌아가신 옛 어른들의 간추려진 슬기와 느낌이 우리들 것보다 더 매력적으로 담겨 있는 수가 있어... (서정주, 「내 인생공부와 문학 표현의 공부」, 『서정주 문학앨범』, 웅진출판사, 178면. (박영희, 앞의 논문에서 재인용)).

		감상, 평가 (소단원 길잡이에 제시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용과 형식, 맥락, 매체를 바꾸어 작품을 비판적·창조적으로 재구성할 수 있다. · 다양한 시각과 방법으로 작품을 생산할 수 있다.
	천재 문화사 문학 I (고형진)	IV. 문학의 수용 01. 작품의 내용과 형식 및 표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품의 내용을 이해한다. · 작품의 형식을 이해한다. · 작품에 나타난 표현을 이해한다. · 내용과 형식과 표현의 유기성을 고려하여 작품을 수용한다.
‘춘향유문 (春香遺文) -춘향의 말3’	창작과 비평사 문학 II (박종호)	III. 한국 문학의 흐름과 세계 문학(2) 2.해방~1960년 대 문학 소단원 ‘2-(2)능금’의 활동하기로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방에서 1960년대에 이르기까지 한국 문학의 흐름을 개괄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 해방과 분단에 대응하는 문학의 다양한 양상을 이해할 수 있다. · 이 시기 세계 문학의 양상을 보편성과 특수성의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다. (소단원2-(2)능금은 정서와 이미지 조화를 이루고 있는 시로 다양한 이미지를 찾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리고 활동하기에 제시된 ‘춘향유문-춘향의 말3’과 전통적 정서인 그리움을 드러내는 방식의 차이점을 살펴보는 활동으로 제시됨)
‘견우의 노래’	지학사 문학 I (권영민)	3. 서정 문학의 수용과 생산 03. 견우의 노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적화자의 개념을 이해할 수 있다. · 시적 화자의 어조와 태도가 시의 정서와 분위기를 형성함을 이해할 수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의 화자와 정서에 유의하여 작품을 효과적으로 수용하고 생산할 수 있다.
<p>‘동천(冬天)’ 및 ‘견우의 노래’</p>	<p>교학사 문학 I (윤석산)</p>	<p>II. 문학 활동 1. 서정 문학의 수용과 생산 (2) 심상과 표현 01. 동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정문학으로서 시의 형식과 운율을 이해할 수 있다. · 시에 나타난 다양한 심상과 표현 방법을 이해할 수 있다. · 시적 화자의 어조를 통해 주제를 이해할 수 있다. · 내용, 형식, 표현의 유기적인 연관을 고려하여 자신의 생각을 시로 표현할 수 있다. <p>(소단원은 서정주의 ‘동천’이나, 학습활동으로 ‘견우의 노래’ 제시하여 두 작품 간의 ‘눈썹’의 이미지를 표현방법의 측면에서 비교하는 활동으로 제시됨)</p>
<p>‘수로부인 (水路夫人)의 얼굴’</p>	<p>비상교평 문학 I (유병환)</p>	<p>III. 문학 작품의 수용과 생산(1) -갈래별 (3) 소통의 내면화 ‘(3)-2 세한도’의 학습활동으로 제시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인화 ‘세한도’와 비교하여 작품을 감상한다. · 매체의 변화가 작품의 내용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알아본다. <p>(학습활동 중 생각넓히기_다른 작품과의 작품 비교에서 향가인 ‘헌화가’와 서정주의 시 ‘수로부인의 얼굴’의 일부를 과거의 문학 작품에 대한 재해석의 측면에서 ‘세한도’와 비교해 감상해 보는 활동으로 제시됨)</p>

[표-3] 2009 개정 문학 교과서 서정주의 설화모티프 시 학습목표

학습활동은 교과서의 학습목표와 밀접하게 관련된다. 작품의 이해를 돕

고 학습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학습자가 작품과 관련된 활동을 하면서 인지적이고 정의적 영역을 신장할 수 있도록 제시된 것이 ‘학습활동’이다. 설화 모티프 시 수록 『문학』 교과서가 ‘학습목표’와 ‘학습활동’의 관계 및 ‘교재 구성’과 학습목표에 따라 교재 구성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한다.

미래엔(윤여탁) 『문학 I』 교과서에 실린 「추천사(鞦韆詞)」는 단원 길잡이의 ‘맥락을 고려한 읽기’단락의 예시로 제시되어 있다. ‘이 시는 작품 속에서 화자가 향단을 상대로 말하고 있는 소통의 맥락과, 작품 밖의 시인이 화자의 목소리를 빌려 당대의 독자들에게 말을 전하는 맥락을 함께 고려하면서 읽을 때, 그 의미를 보다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설화 모티프를 활용한 시가 또 다른 장르 변용을 통해 새로운 창작의 소재로 활용하는 측면에서의 ‘학습재(學習材)’로 제시되어 있지 않다. 한편 ‘이 시를 읽을 때 「춘향전」에 나오는 춘향과 향단의 관계는 물론, 춘향이 그네를 타면서 느꼈을 여러 가지 감정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제대로 이를 감상할 수 없다’고 제시하고, 이를 학습하기 위해서는 문학사적 맥락만으로 불충분하며, 1950년대에 한국 사회적 현실 속에서 춘향으로 하여금 시인은 왜 이러한 시적 독백을 하도록 만들었는가에 대한 사회적 맥락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또한 작품에 대한 설명으로 ‘그네가 이상에 도달할 수 없는 현실적 제약이라면, 춘향이라는 인물은 이상을 향한 열망을 가지고 있는 존재의 상징’임을 교과서 날개부분에 제시하고 있다. 「추천사」는 설화모티프 시다. 과연 작품 생산과 관련된 사회적 상황이나 문화적 여건을 고려하는 단원의 예시 작품으로 적절한가하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천재문화사(고형진) 『문학 I』 교과서에 실린 「추천사」는 단원 구성면에서 적절한가 하는 문제를 지니고 있다. 대단원 ‘IV. 문학의 수용’의 소단

원 '01. 작품의 내용과 형식 및 표현'에 실려 있다. '내용'과 '형식' 및 '표현'에 적합한 시로 「추천사」를 제시할 필요가 있었는가 하는 문제다. 분명 시의 '형식'과 '표현'인 '운율 및 수사법'을 가르치고자 한 단원이다. 절제된 형식에는 분명 그에 알맞은 '내용'이 시에 응축되어 있다. 어조면도 마찬가지다. 굳이 이러한 단원 구성으로 설화모티프를 활용한 시를 제시하여 시 교육을 해야하는가하는 문제는 설화시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지 않고, 학습자에게 그저 다른 자유시들과 마찬가지로의 방법으로 교육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학습활동 또한 「춘향전」의 어느 부분을 읽고 비교하고 차이점을 제시하라는 것인지 밝혀주지 않고 있다. 확장학습은 「추천사」와 별 관련 없이 제시되어 있다. 칼 샌드버그의 「풀」, 김수영의 「풀」, 문정희의 「겨울일기」를 읽고 단원학습목표를 확장하는 제재로 제시되어 있는데, 이 또한 단원목표인 운율, 수사법은 사라지고, 단순히 「풀」의 상징적 의미를 묻고 있다. 굳이 「추천사」를 소단원에 제시하지 않아도 가르칠 수 있는 내용이다.

창작과 비평사 『문학Ⅱ』 교과서에 실린 「춘향유문(春香遺文)-춘향의 말3」의 학습목표는 '해방에서 1960년대에 이르기 까지 한국 문학의 흐름을 개괄적으로 이해', '해방과 분단에 대응하는 문학의 다양한 양상 이해', '이 시기 세계 문학의 양상을 보편성과 특수성 관점에서 이해'한다고 제시되어 있다. 그러나 소단원의 작품은 '2-(2) 능금'(김춘수)이다. 「춘향유문」은 소단원의 적용활동으로 제시되어 있다. 그리고 단순히 우리의 전통적인 정서인 그리움을 드러내는 방식의 차이를 학습하기 위해 인용되었다. 이러한 교과서의 설정이 과연 학습목표에 효과적으로 다가가고 있는가하는 문제를 제기해 볼 수 있다. 또한 '이 시기 세계 문학의 양상을 보편성과 특수성 관점에서 이해'하는 방향으로 소단원 설정이 되어 있지 않다.

「동천」과 「견우의 노래」를 수록하고 있는 지학사 『문학Ⅰ』(권영

민)교과서는 ‘화자의 개념을 이해’, ‘화자의 어조와 태도가 시의 정서와 분위기를 형성함을 이해’, ‘화자와 정서에 유의하여 작품의 효과적으로 수용하고 생산’할 수 있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이는 설화 모티프 시의 일반적 수용 원리를 잘 적용해 학습목표를 설정한 것이므로 적절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또한 교학사 『문학 I』(윤석산)교과서 또한 ‘시의 형식과 운율을 이해’, ‘다양한 심상과 표현 방법을 이해’, ‘화자의 어조를 통해 주제를 이해’, ‘내용, 형식, 표현의 유기적 연관을 고려하여 자신의 생각을 시로 표현’하는 학습목표로 설정해 작품 생산에까지 나아가고 있다. 이는 지학사 『문학 I』(권영민)교과서와 마찬가지로 설화 모티프 시의 일반적 수용 원리를 적용하고 있으나, ‘정서’를 가르칠 것인지, ‘소재의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어떻게 가르칠 것인지를 명확히 하고 있지 않다.

비상교평 『문학 I』(유병환)교과서는 「수로부인의 얼굴」을 수록하여 문인화 세한도와 비교하여 작품을 감상하고, ‘매체의 변화가 작품의 내용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학습하는 목표가 설정되어 있다. 또한 다른 작품과의 비교에서 향가 「헌화가」와 함께 제시해 과거의 문학 작품에 대한 재해석의 측면에서 ‘세한도’와 비교, 감상해보는 활동으로 제시되어 있다. 크게는 ‘작품의 생산’측면의 미래 문학 교육적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설화모티프 시가 수록된 교과서의 학습목표를 바탕으로 정리하자면, 설화 모티프 시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 방법이 학습자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 설화모티프 시가 다른 소재의 자유시와 비슷한 방식으로 학습자가 감상하고 수용하도록 교과서에 수록되어 있다는 점, 국어교과의 교과목표와 교육을 통해 추구하는 인간상을 길러낼 수 있는 방향으로 구성되지 않았다는 점으로 요약할 수 있다.

현행 교과서의 설화모티프 시에 대한 교육 방법을 바탕으로 살펴보면, 설화모티프 시를 교육할 때 과연 여느 시들과 같이 가르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점이 제기된다. 설화모티프 시는 ‘이야기 구조’를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여느 시들과 다르다. 그러므로 시 교육에 있어서 세부적 요소로 설화모티프 시 교육은 이야기를 가르치고 이를 통해 다양한 장르로의 변용이 가능하다는 점을 교육해야 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학습자가 새롭게 작품에 대해 접근하고 자신의 생각을 확장시켜 작품에 적용해 볼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해야 설화모티프 시의 교육적 목표가 달성될 수 있다.

21세기 이후 교육은 창의력과 상상력에 초점이 맞추어 전개해 나가고 있다. 이러한 시대의 교육에 있어 설화 모티프 시 교육은 여느 때보다 강조되어야 하고, 그 방향과 방법을 처음으로 돌아가 다시 구성해야할 때이다.

2. 설화모티프 시 교육의 의의와 방법

가. 설화모티프 시 교육의 의의

설화모티프 시 교육은 설화를 활용하여 시의 의미를 이해하도록 하는 수업을 통해 학습자의 행동에 유의미한 변화⁴²⁾를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유의미한 변화는 설화를 통해 설화모티프 시에 대한 이해를 돕고 새로운 작품을 창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학습자의 내적 동기 유발을 의미한다.

그런 점에서 설화모티프 시 교육의 성격을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모티프가 되는 설화를 교육함으로써 설화적 상상력을 경험하고 설

42) 우대권, 「설화 교육 연구-〈아기장수 우투리〉를 중심으로-」, 한국외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15면.

화장르 학습자는 이를 통하여 상상력을 기르고 이를 통해 설화모티프 시에 대한 이해를 넘어 자신이 새로운 작품을 창작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다.

둘째, 설화모티프 시의 원전인 설화는 말로 표현된 것이므로 학습자는 이를 통하여 언어능력을 기를 수 있다. 특히, 설화는 구연을 통하여 전달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말하기, 듣기 능력 신장에 중요한 몫을 한다. 또한 읽기와 쓰기 능력도 기를 수 있는 좋은 제재가 될 수 있다. 설화모티프 시를 교육함에 있어서 최종적 교육 목표는 새로운 문학 작품을 창작하는데까지 이르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설화모티프 시는 다양한 언어적 능력을 기르고 학습할 수 있는 좋은 교육적 제재가 될 수 있다고 하겠다.

셋째, 설화 속에는 우리 조상들이 겪어 온 삶의 다양한 체험, 사상, 감정, 지혜, 용기, 가치관 등이 용해되어 있다. 그러므로 설화모티프 시의 학습자는 설화를 통해 설화모티프 시를 학습하게 되므로 이 과정에서 문학적 체험을 풍부히 함은 물론 한국인의 삶의 여러 가지 방식을 배우며, 한국적 정서와 가치관을 함양하고 심화시켜 나갈 수 있게 된다.

넷째, 설화모티프 시는 학습자에게 흥미를 불러 일으켜 즐거움과 신선한 경험을 제공하면서 동시에 교훈을 준다.

다섯째, 설화모티프 시의 원전인 설화 속에는 우리 조상들의 풍습, 생활, 사상, 신앙 등이 녹아 있고, 우리 조상들의 곳곳한 힘과 슬기, 지혜, 소박한 꿈 등이 용해되어 있으므로, 설화모티프 시를 학습하기 위해 설화 내용을 이해하는 과정이 선행되면서 학습자는 이를 통하여 전통 문화를 계승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설화모티프 시 교육은 학습자에게 상상력을 발달과 언어능력의 향상에 기여하며, 한국적 정서를 함양하여 학습동기를 불러일으키고, 전통 문화를 계승 및 발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설화모티프 시 교육은 원전 설화를 활용하여 교육해야 하며, 설화모티프 시 교육의 당위성과 한국적 전통성에 대한 고찰을 해야한다.⁴³⁾ 또한 친숙한 설화를 바탕으로 학습자의 학습 동기를 유발하고, 이를 통해 서정주가 말한 세속화되고 타락한 오늘의 우리 시대를 ‘신화의 영험성’을 통해 되돌아 볼 수 있는 계기 또한 문학 교육 중 설화모티프 시 교육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앞서 살펴본 설화모티프 시 교육의 성격을 살펴볼 때, 설화모티프 시 교육은 원전 설화를 활용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주장의 귀착점에 서면 우리는 다시금 설화모티프 시에서 우리 고전문학—설화, 민요, 판소리, 무가 등—의 고유한 특질들, 예컨대 정형 율격의 언어적 자질은 차지하고라도 한의 정서라든지 풍류의 미학, 자연친화적 인생관과 같은 요소들이 민족문학의 본령이요, 궁극적으로서 그 맥을 지켜야만 하는 대상이 되는지를 묻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요컨대 기존의 논의가 민족주체성이라는 측면에 고무되고 촉진되었다는 사실이 전통론의 방향을 오도하기도 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말하자면 우리시의 전통과 전통 인식이 어떻게 근대의 인식을 위해 작동했는가 하는 대응양상의 측면에서 논의가 수립될 때 비로소 역동적인 실체⁴⁴⁾로서의 설화모티프 시의 교육적 방안을 구성할 수 있다고 본다.

본질적인 문제는 설화모티프 시 교육에 있어서 전통을 어떻게 인식시킬

43) 우리는 흔히 역사의식을 산 사람들의 현실만을 너무 중시하는 나머지 과거사란 한참 고거리의 문헌유적(文獻遺跡)을 제외한다면 망각된 무로서 느끼고 살지만 우리의 고대인들은 사후 후대에 이어 전승되는 마음의 흐름을 혼의 실존으로서 인식하고 느끼고 살았기 때문에...(중략)...얼굴을 알던 사람이 아닌 아주 먼 세월전의 사람들의 혼에 대해서도 간절한 실감으로 접했었다. 그렇게 해서 과거사 속의 정신의 장점들은 문 열면 바로 보이는 것 같은 실감력(實感力)으로써 후세에 작용하여 이런 힘으로 가령 신라의 통일 같은 것도 이루어진다고 생각한다. 서정주, 「한국적 전통성의 근원」, 오세영(편), 『한국현대시인연구-20세기 전반기를 중심으로』, 월인, 2003, 343면.

44) 박운우, 앞의 책, 149~150면.

것인가 하는 것이다. 궁극적으로 학습자로 하여금 역사적인 것으로 문학의 의미와 가치를 재구성할 수 있는 능력과 관련을 맺는다. 전통에 대한 이해는 설화모티프 시에 내재된 문학사적 연속성에 대한 인식을 전제로 하는 바, 이것이 곧바로 민족 문학의 주체성에 대한 편견이나 고전문학적 특성의 현대적 재확인으로 고정되어서는 안 된다. 또한 설화모티프 시 교육은 단순히 소재차원의 관점을 벗어나 운율, 형태, 정서, 사상을 포괄하는 총체적 미학 체계이자 동시에 구조적 원리로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또한 설화는 당대를 살았던 삶의 주체가 언어로 구현한 이념과 가치 체계의 총화다. 즉, 설화모티프 시 교육 방안은 시적 전통에 대한 이해, 곧 현재적 입장에서 학습자의 세계인식을 심화·확대⁴⁵⁾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설화모티프 시 교육은 이 같은 맥락에서 교육적 가치가 충분하다고 하겠다. 설화모티프 시의 교육적 가치를 바탕으로 교육적 목표가 설정되어야 하며, 설화모티프 시의 개념 설정과 교육 방안이 수립되어야 한다. 또한 설화모티프 시가 무궁무진한 상상력의 원천임을 확인하고 소재활용의 다양성과 상상력의 확장의 차원에 집중하여 설화모티프 시의 가치를 재조명해야 한다.

문학 교육이 ‘언어능력의 증진’, ‘개인의 정신적 성장’, ‘개인의 주체성 확립’, ‘문화의 계승과 창조 능력 증진’, ‘전인적 인간성 함양’을 목표로 한다.⁴⁶⁾라고 하면, 시 교육 역시, 기본적으로 이런 목표를 지향한다고 볼 수 있다. 좀 더 미시적인 관점에서 2011년 개정 국어과 문학 영역 교육 목표를 보면, ‘문학의 다양한 특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다양한 관점과 방법으로 작품을 해석하고, 평가하며 자신의 일상적인 삶을 작품으로 표현한

45) 박윤우, 앞의 책, 167~168면.

46) 김대행 외, 『문학교육원론』, 서울대학교출판부, 2000, 38~67면.

다.’⁴⁷⁾는 내용의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1) 비유, 운율, 상징 등의 표현 방식을 바탕으로 작품을 이해하고 표현한다.

(2) 갈등의 진행과 해결 과정을 파악하며 작품을 이해한다.

(3) 다양한 관점과 방법으로 작품을 해석한다.

(4) 표현에 드러나는 작가의 태도에 주목하여 작품을 이해하고 표현한다.

(5) 작품의 세계가 누구의 눈을 통해 전달되는지 파악하며 작품을 수용한다.

(6) 사회 · 문화 · 역사적 상황을 바탕으로 작품의 의미를 파악한다.

(7) 작품의 창작 의도와 소통 맥락을 고려하며 작품을 수용한다.

(8) 자신의 주체적인 관점에서 작품을 평가한다.

(9) 자신의 일상에서 의미 있는 경험을 찾아 다양한 작품으로 표현한다.

(10) 문학이 인간의 삶에 어떤 가치를 지니는지 이해한다.⁴⁸⁾

위의 항목은 국어과 문학 내용 성취기준이다. 시 교육에서 설화를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국어과 문학 영역 교육목표와 관련지어 살펴보면, 문학 성취기준 중 ‘(1) 비유, 운율, 상징 등의 표현 방식을 바탕으로 작품을 이해하고 표현한다.’는 것은 설화수용의 일반 원리 중 ‘율격화’를 통해 교육할 수 있다. 수용되는 과정에서 운율형성 요소를 파악하고, ‘전경화’를 통해 ‘비유’와 ‘상징’에 대해서도 설명할 수 있다.

‘(4) 표현에 드러나는 작가의 태도에 주목하여 작품을 이해하고 표현한다.’는 성취기준은 설화를 수용할 때, 작가가 어느 곳에 초점을 맞추었고,

47) 교육과학기술부, 『국어과 교육과정』, 2011, 68면.

48) 교육과학기술부, 위의 책, 68~70면.

그것에 따라 작품에 대한 이해가 달라지는 작품들을 보고, 어떠한 표현 방식으로 작가의 태도가 드러나는지 이해하고 학습할 수 있다.

‘(5) 작품의 세계가 누구의 눈을 통해 전달되는지 파악하며 작품을 수용한다.’는 성취기준은 ‘화자’에 주목하여, 다른 화자를 설정한 설화모티프 시를 통해 작품 속 세계관과 주제가 어떻게 형상화되고 있는지에 대해 파악하면 성취기준을 달성할 수 있다.

‘(6) 사회 · 문화 · 역사적 상황을 바탕으로 작품의 의미를 파악한다.’는 성취기준은 설화의 구전성과 민중성에 기반을 두고 시 속에서도 드러나는 설화의 시대적 상황이 드러나는 작품을 통해 당시의 정서와 사상, 민중의 세계관과 지혜, 풍습 등을 배울 수 있는 학습 자료로 설화모티프 시를 활용할 수 있다.

‘(7) 작품의 창작 의도와 소통 맥락을 고려하며 작품을 수용한다.’는 성취기준은 설화의 개방성과 연행성에 주목하여 설화모티프 시를 교육할 수 있다. 소통되는 맥락에서 작품은 어떠한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화자와 청자의 관계 파악을 통해서 작품의 창작의도와 소통맥락을 고려하여 작품을 이해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다.

‘(10) 문학이 인간의 삶에 어떤 가치를 지니는지 이해한다.’는 성취기준은 ‘설화’를 통해서 뿐 아니라 모든 문학 작품이 ‘인간의 삶’에 어떠한 가치를 지니는가에 대한 원론적인 이야기라 할 수 있다. 문학은 인간의 삶에 풍부한 정서를 느낄 수 있게 해주며, 삶에 대한 총체적인 이해를 가능하게 한다. 설화모티프 시도 마찬가지다. 학습자는 원전 설화의 서사구조를 파악하면서 그 시대의 삶의 모습과 우리 민족의 정체성과 주체성을 파악할 수 있다. 설화모티프 시는 현재의 삶에도 그 모습을 반영하여 더 나은 가치와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다양한 삶의 모습을 학습자에게 제공해 주며, 상상력과 그 변용과정을 통해서 창의성 함

양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가치 있는 학습 자료로 제공될 수 있다.

지금까지 성취기준을 통한 설화모티프 시 교육적 의의 및 가치를 살펴보았다. 설화모티프 시는 현재의 삶에 있어 다양한 경험과 상상력의 신장을 가능할 수 있는 학습 제재다. 그러므로 그 초석으로 설화모티프 시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 원전인 설화를 활용해 교육해야함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설화모티프 시 교육에 있어서 중요한 점은 다양한 경험과 상상력이다. 이는 설화를 통해 가능하며 설화모티프 시를 교육하는 방법 또한 원전을 활용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다음 장에서 설화모티프 시 교육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나. 설화모티프 시 교육 방법

설화모티프 시 교육은 설화 모티프를 변용한 작품이 근원 설화의 어느 부분과 관련된 것인지 살펴보는 과정과 반영된 부분이 어떻게 변용되었는지 비교 분석하는 과정, 마지막으로 새로운 작품에 설화 모티프가 다양하게 활용되고, 변용될 수 있음을 확인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앞의 장에서 말한 ‘창의력 신장’에 밑바탕이 되며 교과 교육 목표인 ‘상상력을 함양한 학습자’로 기르는 데 이바지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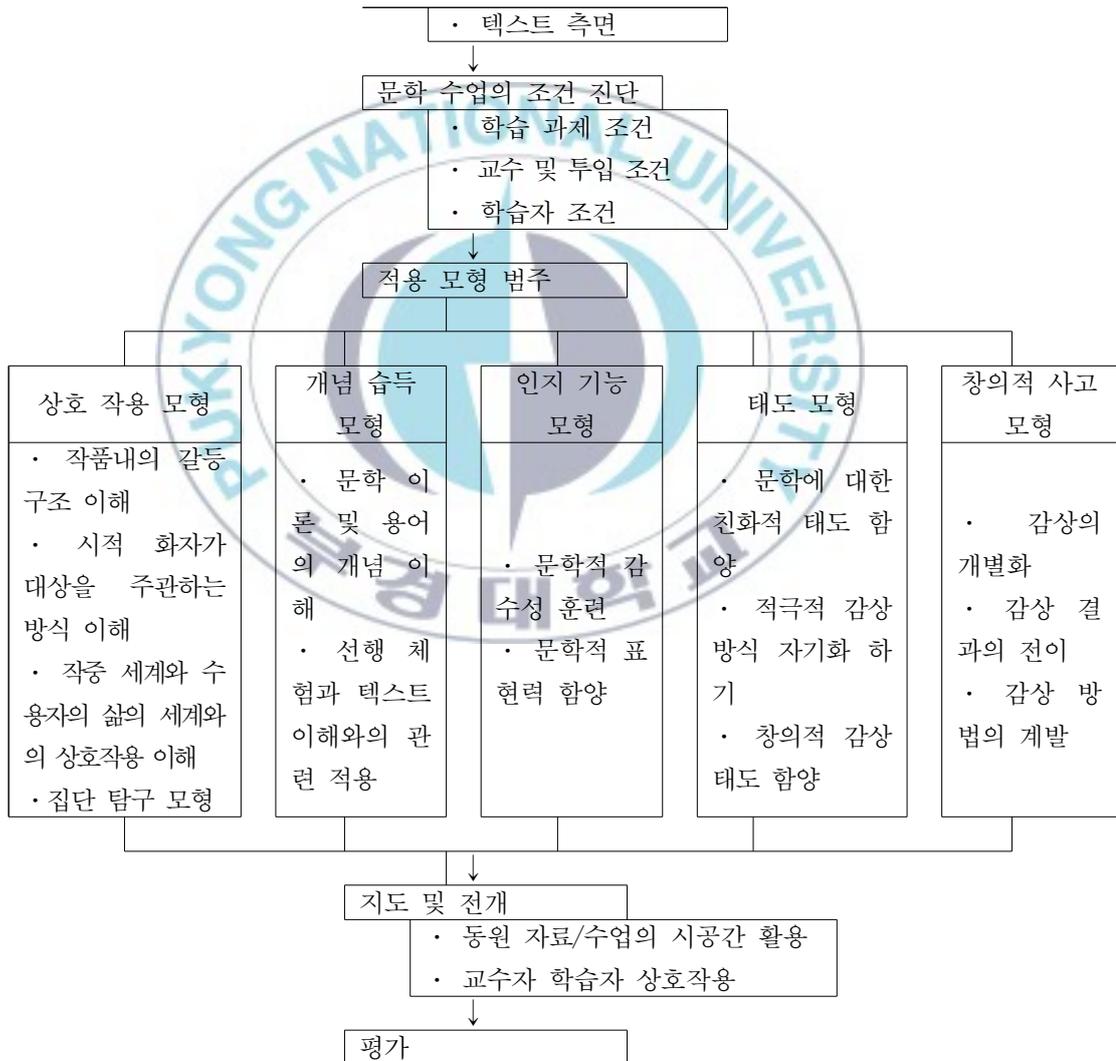
문학수업은 목표별 수업 층위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일반화된 모형을 구축하고 교육방법을 구안하기는 매우 어렵다. 그러나 포괄적인 수준으로 구조화⁴⁹⁾한 표가 보여주는 수업모형 범주는 범교과적 모형을 가능한 대로

49) 구인환 외, 앞의 책, 235면.

전략화 된 목표

· 생산자/수용자 측면

문학 수업에 대응시켜 본 것이다. 그러므로 이를 어떻게 활용하여 문학 수업의 가능태를 만들어 갈 수 있을지 생각해보아야 한다. 시 교육에 적용시켜 예를 들면, ‘상호작용 수업모형’은 시의 화자나 갈래 변화 양상과 관련해서 보는 수업양식으로, ‘태도모형’은 자신의 경험을 문학 작품을 읽고 떠올리고 작품 창작 동기가 될 만한 것을 새롭게 인식하는 수업이라 할 수



있으며, ‘개념습득모형’은 인지 기능 모형 및 태도모형과 상호 보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수업 모형이다. 단순히 문학의 개념을 주입식으로 수업과정에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다양한 문학적 감수성과 상상력을 발휘하여 작품을 감상하여 그 가운데 글의 갈래별로 어떠한 특징이 나타나고, 갈래에 따른 언어표현방식이나 내용구성방식 등이 어떻게 다른지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한다. 무엇보다 문학 수업에 적용하기 적절한 수업 모형은 창의적 사고 모형이다. 앞서 살펴 본 것처럼 2009개정 교육과정의 국어과 교과목표는 ‘창의성 함양’에 집중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문학 교과 특성 또한 문학을 읽고, 보고, 느끼고, 감상하는 가운데 필요한 활동이 바로 ‘창의적 사고 활동’이다. 작품마다 비슷한 소재나 주제를 가지고 다르게 표현하는 능력에 있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낯설게 하기 즉, ‘창의적 사고 활동’이다. 새롭게 바라보고, 낯선 것을 친밀하게 드러내고 친밀한 것을 익숙하지 않게 독자에게 보여주는 힘이 바로 ‘창의적 사고’에서 출발하기 때문이다. 설화모티프 시 교육은 창의적 사고를 신장시키고 현재의 관점에서 다양한 모티프를 활용하여 변화무쌍한 소재로 활용할 수 있는 소재원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교수자는 설화모티프를 바탕으로 새롭게 창작된 작품—시, 소설, 희곡 등—을 교육함으로써 현재 교육 목표에 적합한 문학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며, 학습자들에게 ‘상상력의 발현’, ‘발상의 전환’과 ‘창의력 사고’를 증진시켜 새로운 작품을 생산해 낼 수 있어 문화 창조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하는 문학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우선 기존 시 수업 모형을 제시하는 이론을 살펴보면, 여러 유형들이 제시되었으나 학습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적용되기 어려운 점이 있다. 시 교육 방법은 여러 유형이 있으므로 설화모티프 시 교육 방법에 적절한 수업 방안을 살펴보도록 한다.

시-교수 학습 모형에는 ‘구인환’외의 절차모형, ‘경규진’의 반응 중심 수

업모형, ‘권혁준’의 통합 적용 수업모형, ‘김재홍’의 시 분석 지도 모형, ‘한국교육개발원’의 운문제재 모형 등이 있다. 김재홍, 한국교육개발원 모형이 교사 중심의 수업모형이라면 구인환외, 경규진, 권혁준의 모형은 학생 중심 모형이라고 할 수 있다.⁵⁰⁾ 각 모형은 설화모티프 시에 적용되는 모형이라기보다는 문학교육 전반에 적용할 수 있는 포괄적인 틀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본고에서는 각 모형을 제시하기 보다는 모형별 문제점을 간단히 지적하고, 필자의 설화모티프 시 교육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구인환외 모형은 전체를 보고 부분으로 세밀하게 접근하였다가 다시 전체로 돌아오는 수업 절차 모형이다. 또한 학습자의 개별 경험까지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학습자 중심의 개방적 구조다. 이 모형은 시를 가르치는 모범적이고, 일반적인 모형이라 할 수 있다. 단점으로 지적할 부분은 ‘지도 단계’에서 작품 전체적 접근은 학생이 교사와 상호 수업을 통해 수정 보완할 수 있으나, 그 외의 수업에서는 종래 교사중심 수업으로 흐를 수 있다는 점이다.

경규진 모형은 학생들의 반응 중심으로 한 반응 중심 문학 교육 방법을 연구하였다. 이 방법은 중요한 특징을 지닌다. 그것은 학생 중심의 구성주의 모형이라는 것이다. 학생들의 능력이 고려되지 않은 채, 이 교육 방법을 적용한다면, 시 교육의 효과는 낮아질 수밖에 없다. 교사의 역할이 적어서 교실에서 시 교육 방법으로 채택하기 좋은 교수법이나, 적용이 쉽지 않다는 것이 단점이다.

권혁준의 모형은 신비평과 독자 반응이론을 통합한 것이다. 앞의 두 모형을 통합한 것으로 보인다. 기대지평만이 진단되고 있어 과제 분석에 의한 선수학습 진단의 과정이 없다. 부분적 접근의 해석적 읽기와 종합적 접

50) 박지원, 「시 교육 방법론-중학교 교과서 수록시를 중심으로」, 세종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20면.

근이 중복되어 심미적 읽기 지도가 될 수 있다. 그러나 현장 수업 적용 면에서 근본정신을 잘 지킨다면 시현이 충분히 가능한 모형이다.

한국교육개발원 제재 중심 모형은 확산적 사고를 학습자로 하여금 이끌어내지 못하고, 내재적인 관점에서 학습만 가능하다는 단점을 지니고 있으며, 낭송이 암송하는 것으로 이어지면서 지식위주의 문학 교육으로 변질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반대로 시의 내적 의미에 충실한 교수법으로 적절한 방법이라 할 수 있겠다.

연구자는 앞의 네 가지 시 교육 모형을 바탕으로 설화모티프 시 교육 모형을 제시해보려 한다. 구인환의 모형에서는 지도단계와 내면화 단계를, 경규진의 모형에서는 반응 형성과 반응의 명료화 단계를, 권혁준의 모형에서 지도단계를, 한국교육개발원 모형에서는 분석단계와 통합단계를 바탕으로 이를 종합하여 교육방법을 3단계로 나누어보았다. 연구자가 제시하는 ‘설화모티프 시 교육 방법의 틀 3단계’는 아래와 같다.

1단계	내용이해단계	설화모티프 시에 사용된 설화 모티프 찾기
		↓ ↑
2단계	내용확인단계	설화모티프와 시에 반영된 내용 비교 · 분석
		↓ ↑
3단계	내면화단계	설화모티프 활용의 다양성 확인 및 확장

[표-4] 설화모티프 시 교육 방법의 틀

설화모티프 시는 그 특성상 소재를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그러므로 운율 측면에서의 논의는 본고에서는 하지 않는다. 소재를 다양하게 체험하고 그것을 원전과 비교하면서 어떻게 변용되었고,

이를 통해 학습자 스스로 내면화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학습모형 ‘소재체험하기’라 제시하고자 한다. 그렇다면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소재를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다.

1) 설화모티프 시에 활용된 모티프 찾기

‘소재체험하기’ 교수-학습 방법에서 첫 번째 단계는 시의 전개과정 확인하면서 읽고, 관련 설화는 서사구조 찾으면서 활용된 모티프를 찾는 활동이다.

시의 전개과정을 확인하면 다음 과정은 시에서 찾은 전개 과정을 바탕으로 설화를 읽어볼 수 있도록 한다. 설화를 읽으면서 마찬가지로 전개과정 및 서사구조를 확인하면서 읽도록 한다.⁵¹⁾ 학습자는 읽으면서 중요한 시와 소설의 소재를 파악하게 되고, 시의 전개과정과 설화의 서사구조를 살펴보고 난 후, 다음 과정으로 넘어간다.

2) 설화모티프와 시에 반영된 내용 비교 · 분석

다음 과정에서는 시와 설화의 전개 및 서사구조의 공통점을 확인하고, 설화에서 시로 장르변화가 생길 때 일치하거나, 생략 및 변형된 부분 확인하는 단계이다. 학습자가 설화의 서사구조를 확인하여 시의 전개과정과 달라졌음을 확인하게 되고, 같은 소재를 활용하여, 다른 장르인 시로 변용되는 과정에서 어떻게 시인이 재구조화 했고, 소재를 어떠한 방식으로 차용했으며, 재해석하는 과정에서 작가가 상상력을 발휘한 내용 등을 분석

51) 쉽게 접할 수 있는 접동새 설화를 변용한 김소월의 시 「집동새」를 통해서 ‘소재체험하기’를 적용하여 예시를 제시해 보고자 한다. 다음은 접동새 설화를 바탕으로 수업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자료의 예시다.

하고 학습자 스스로 전개과정을 재구조화해 보도록 하는 과정이다.

학습자가 시상 전개과정을 재구조화하는데, 전개과정의 순서를 바꾸어도 상관이 없으며, 학습자 나름의 순서로 조직하여 인과관계가 형성되면 설화의 내용에 비추어 이야기를 재구성해볼 수 있도록 한다. 또는 화자를 바꾸는 방법이나 서사구조를 거꾸로 가는 방법 등의 소재변화의 다양화가 가능함을 제시하고 학습자 스스로 시를 퍼즐 맞추는 것과 같은 재미를 느낄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음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이다.

<p>옛날 평북(平北) 박천의 진두강(津頭江)가에 서사구조①한 소녀가 부모와 아래로 아홉이나 되는 오랍 동생을 데리고 함께 살았다. 그런데 어느 날 그만 어머니가 죽게 되자 아버지는 서사구조②의붓엄마를 얻었다. 계모는 성질이 흉포 잔인하여 진실 10남매를 매일같이 구박했지만, 그녀의 아버지는 이를 못 본 체 하였다. 계모의 학대는 날로 심하여 생모가 거쳐했던 방의 유물들을 모두 없이 하였을 뿐만 아니라, 진실 자식들에게 끼니조차 제대로 주지 않았고 그들이 밖에 나가지 못하도록 집에 가두어 두기까지 하였다. 서사구조③세월이 지나 과년해지자 소녀는 박천 어느 부잣집 도련과 혼인을 하게 되었다. 소녀는 약혼자의 집으로부터 많은 예물을 받았다. 이를 서사구조④시기한 계모는 어느 날 그 예물을 빼앗고, 그녀를 그 친어머니의 장롱 속에 가두었다가 마침내 불에 태워 죽였다.</p> <p>의지할 곳 없는 아홉 어린 동생들은 누나가 불에 타죽은 재를 헤치며 슬피 울었다. 그때 서사구조⑤재 속에서 한 마리의 접동새가 살아 날아갔다. 죽은 누나의 넋이 접동새로 환생하였던 것이다. 한편 뒤늦게 이 사실을 안 서사구조⑥관가에서는 계모를 잡아, 그 딸이 죽은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사형을 시켰다. 계모의 재 속에서 까마귀가 나왔다.</p> <p>서사구조⑦접동새가 된 소녀는 죽어서도 계모가 무서워 대낮엔 나오지 못하고 남들이 다 자는 야삼경(夜三更)이 되어야만 조심스럽게 날아와 오랍동생들이 자는 창가에서 목놓아 울었다.</p>	<p><u><시상 전개 재구조화 예시></u></p> <p>‘진두강 가람가에 살던’ (시상 전개과정①) ↓ ‘누나는 의붓어미 시샘에 죽’(시상 전개과정③)게 되고, ↓ ‘시샘에 몸이 죽은 우리 누나는/ 죽어서 접동새가 되’(시상 전개과정④)어 ↓ ‘진두강 앞 마을에/ 와서’ (시상 전개과정②)우는데, ↓ ‘야삼경 남 다 자는 밤이 깊으면/ 이 산 저 산 옮겨가며 슬피’ (시상 전개과정⑤)운다.</p>
---	---

3) 설화모티프 활용의 다양성 확인 및 확장

마지막 단계인 종합단계에서는 학습자가 설화에서 시로 장르 변화가 일어날 때, 작가의 의도하여 소재 및 강조한 내용구조 발견하는 단계이다. 예를 들어, 1연에 배치되어야 할 ‘진두강 가람가에 살던’ 누나의 이야기가 2연에 배치하고, 1연의 내용이 ‘접동/접동/아우래비 접동’이라는 구조로 배치되어 있음을 상기시키고, 그 이유를 다양하게 발표하고 소그룹활동을 통해서 의견을 나누어 볼 수 있도록 한 후, 각 모듈의 대표가 조원들의 생각이나 내용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하고, 설화에서 시로 변화가 생길 때, 작가의 의도는 죽은 누나의 분신이라 할 수 있는 ‘접동새’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학습자는 서정주의 「견우의 노래」에서처럼 설화를 활용하여 작품을 창작할 때 화자나 청자의 설정, 소재의 변형과 활용 측면에서 그 다양성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작품의 내용을 새롭게 구성해보거나 다른 소재를 활용하여 문학적 상상력을 발휘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3. 설화 모티프 시 교육의 실제

가. 설화 모티프 시 수업 모형 및 교육 방안

1) 설화모티프 시 수업 모형

설화모티프 시 수업 모형은 소재 활용의 다양성을 체험하고 내면화하는 과정에 적합해야 한다. 기존 국어과 교수학습방법에서 살펴보면, ‘창의성 계발 모형’과 ‘반응 중심 학습모형’이라 할 수 있다. 전반적인 학습과정은 앞서 제시한 포괄적 문학 교육의 과정을 따르되, 세부적인 학습방안은 ‘창의성 계발 모형’과 ‘반응 중심 학습모형’을 바탕으로 연구자는 ‘내면화 중심 교수 학습 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창의성 계발 학습모형은 창의적 국어사용 능력을 계발하는 데 초점을 두는 모형이다. 즉, 언어 수행 과정에서 사고의 유창성, 독창성, 융통성, 다양성을 강조하는 모형이라 할 수 있다. 유창성은 풍부한 사고의 양을, 독창성은 사고의 새로움을, 융통성은 사고의 유연함을, 다양성은 넓은 사고를 강조한다. 따라서 이 모형은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답을 요구하기보다는 학습자의 독창적이고 다양한 아이디어나 문제 해결 방법을 중시한다.

창의성이란 아이디어를 풍부하게 이끌어 내고, 생각이 편협하지 않도록 하고 융통성이 있으며, 제시된 아이디어를 새롭게 해석하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다. 국어과 수업에서 창의성 계발은 문학 작품의 수용과 창작에서 두드러지게 발현될 수 있는 능력이다. 문학 영역뿐 아니라, 말하기나 쓰기 등의 모든 국어 영역에서 적용이 가능하다.⁵²⁾ 즉, 창의성 계발 학습 모형은 국어수업에서 정답을 요구하기 보다는 다양한 각도에서 문제를 볼 수 있게 할 때 적용하면 좋다.

창의성 계발 학습 모형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과 정	주 요 활 동
문제 상황 분석하기	· 동기유발

52) 최미숙 외, 『국어 교육의 이해』, 사회평론, 2009, 91~93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습 문제 확인 · 학습과제 분석
아이디어 생성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제를 다른 각도에서 검토 ·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 산출
아이디어 평가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단토의 · 아이디어 평가(최선의 아이디어 선택) · 일반화
아이디어 적용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적인 문제 상황에 적용 · 문제점 확인 및 적용 가능성 탐색

[표-5] 창의성 계발 학습 모형

문제 상황 분석하기 단계는 학습 문제를 확인하고 아이디어 생성이나 적용을 요구하는 학습 과제를 분석하는 단계이다. 아이디어 생성하기 단계는 아이디어를 생성할 수 있는 방법을 탐구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다양한 아이디어를 생성하는 단계이다. 아이디어 평가하기 단계는 다양하게 생성된 아이디어를 비교·검토하고, 그중에서 최선의 아이디어를 선택하는 단계이다. 아이디어 적용하기 단계는 선택된 아이디어를 실제 언어 수행에 적용하는 단계이다.

반응 중심 학습 모형은 수용이론이나 반응 이론에 근거한 것으로 문학 작품을 가르칠 때 학습자 개개인의 반응을 중시하는 모형이다. 이는 작품에 대한 해석이 독자(학습자)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그리고 이 모형은 학습자 개개인의 반응을 최대한 존중하고 다양하고 창의적인 반응을 유도함으로써 학습자의 역동적인 참여와 흥미를 유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개별 학습자의 반응을 강조한다고 하더라도, 작품(텍스트)은 여전히 감상의 대상으로서 감상의 중심에

놓일 수밖에 없다. 텍스트와 연결고리를 갖지 못하는 반응은 무의미한 반응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모형은 텍스트와 독자 간 교구의 과정과 결과를 강조한다.

반응 중심 학습은 독자 반응 이론을 토대로 한 학습법이다. 독자 반응 이론이란 문학 현상의 중요 요소인 독자-텍스트-작가 중 그동안 소외되어 오던 독자를 문학 현상의 중심에 위치시켜 놓은 이론이다. 이는 교육학에서 강조하는 학습자 중심 교육과도 궤를 같이 한다. 작가가 아무리 훌륭한 문학 작품을 창작했는지라도 그것이 읽혀지지 않는다면 문학 작품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가정이다. 이전 문학 연구는 ‘작품’ 자체에만 또는 ‘작가’에만 쏠려 있었다. 이것은 독자인 학생을 소외시키고 문학텍스트 자체의 분석과 작가에 대한 많은 지식만을 요구하는 주입식 교육을 낳게 했다. 문학 교육에서는 독자인 학생을 중심으로 각 학생들이 경험하는 심미적 체험⁵³⁾을 좀 더 소중히 다룰 수 있는 문학 수업을 설계해야 할 것이다.

반응 중심 학습 모형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과 정	주 요 활 동
반응 준비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기유발 · 학습 문제 확인 · 학습의 필요성 또는 중요성 확인 · 배경지식 활성화
반응 형성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품 읽기 · 작품에 대한 개인 반응 정리
반응 명료화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품에 대한 개인 반응 공유 및 상호작용 · 자신의 반응 정교화 및 재정리

53) 최미숙 외, 앞의 책, 98~99면.

반응 심화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른 작품과 관련짓기 · 일반화하기
---------	--

[표-6] 반응 중심 학습 모형

반응 준비하기 단계는 학습 문제를 확인하고 작품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배경 지식을 활성화하는 단계이다. 작품과 관련된 자료를 살펴보거나, 삽화나 그림 등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거나, 일상의 경험을 이야기함으로써 배경 지식을 활성화할 수 있다. 반응 형성하기 단계는 작품을 읽으면서 학습자가 최초의 반응을 형성하고, 작품을 읽고 난 후의 생각이나 느낌을 반응 일지 등에 간단히 정리해 보는 단계이다. 반응 명료화하기 단계는 각자 정리한 반응을 상호 공유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신의 반응을 정교화하거나 확장하는 단계이다. 반응 심화하기 단계는 주제, 인물, 사건, 배경 등을 토대로 다른 작품과 관련지어 보면서 작품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현실 세계나 자신의 삶에 투영해 봄으로써 반응을 심화하는 단계이다. 특정 주제에 대한 토의나 토론 활동을 통하여 반응을 심화하는 방법도 좋다.

이 두 모형은 설화모티프 시 교육의 기초가 된다. 교실 수업에서 개인적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문학 교육의 측면과 모둠 또는 집단적 차원에서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창의성 계발 학습 모형과 반응 중심 학습 모형을 종합, 적용하여 설화모티프 시 교육 방안의 기초를 세워 보려 한다.

문제 상황 분석하기 단계와 반응준비하기 단계는 유사하다. 동기유발 및 학습과제를 확인하고 배경지식을 활성화한다는 점에서 유사하다. 이

단계를 거치면서 학습자는 학습과제를 확인하고 자신의 배경지식을 끄집어낸다.

아이디어 생성하기 단계와 반응형성하기 단계는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작품을 읽고 작품에 대한 개인의 반응을 정리하고 문제를 다른 각도에서 검토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생성하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 학습자는 ‘내면화’를 경험하게 된다.

내면화는 작품을 감상하고 자신의 정서로 환기하는 것을 의미한다. 내면화 과정은 다양하다. 자신의 체험과 경험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인 원리다. ‘문학 제재 수업의 일반 절차 모형(시 수업의 경우)’에서 ‘내면화 단계’를 자세히 살펴보면, ‘(1) 시적 체험의 수평적 확대, (2) 시적 체험의 수직적 심화, (3) 시 작품 쓰기’로 나아간다.⁵⁴⁾ 특히 ‘내면화 단계’를 따로 설정한 것은 독자의 내면에서 이루어지는 공감, 감정 이입, 비판적 감정 등을 교수·학습의 과정에 명시적으로 제시한 것⁵⁵⁾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내면화 단계를 어떻게 수업 안에서 효율적으로 담아 학습이 이루어지게 할 수 있을까하는 것이 설화모티프 시를 교육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겠다. 내면화가 수평적이고 수직적으로 이루어져야 설화모티프 시 교육의 방안을 제대로 수립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여기서 수평적이라는 것은 다른 학생들의 반응을 함께 나누어보는 것이고, 수직적인 것은 다른 학습자와의 반응을 통해 자기 스스로의 이해와 추론, 비판, 상상까지 아우르는 것이다.

아이디어 평가하기 단계와 반응 명료화하기 단계는 집단 토의 및 아이디어 평가, 개인의 반응을 공유하면서 자신의 반응을 정교화하고 일반화하여 재정리할 수 있다. 즉, 정리한 내용을 바탕으로 다른 작품과 관련짓

54) 구인환 외, 앞의 책, 242~243면.

55) 최미숙 외, 앞의 책, 342면.

고, 일반 문제에 대해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게 된다.

이러한 단계를 종합하여 설화모티프 시를 학습할 때, 반응 형성 및 명료화 단계를 적용해 원전의 내용에서 얻은 상상력(아이디어)을 모듈별로 나누어보고, 아이디어 생성단계를 적용해 다양한 소재를 활용할 수 있음을 확인하여 중심소재를 변형할 수 있도록 한다. 다음으로 내면화 펼쳐보기 단계를 적용하여 작품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학습자 개인이 소재 및 주제에 맞는 갈래를 정하고, 내면화 수직적 심화 단계를 통해 주인공 및 화자를 창조하고, 반응 명료화 및 심화, 아이디어 적용 단계를 바탕으로 서사구조나 이야기의 순서를 바꾸어서 줄거리를 만들고, 마지막으로 아이디어 평가 및 수정 단계를 적용해 작품을 수정하는 단계를 거칠 수 있도록 한다면 설화모티프 시를 심화 및 확장하여 이해할 수 있다.

연구자는 앞서 제시한 창의력 개발 학습모형과 반응 중심 학습 모형을 바탕으로 설화모티프 활용의 다양성 확인 및 확장 단계에서 ‘내면화’가 이루어 질 수 있는 교수·학습과정을 다음과 같이 설정해 보았다.

내면화 중심 교수·학습과정		창의성개발학습모형	반응중심학습모형
(1) 상상력 (아이디어) 나누기	시적 체험의 수평적 확대	아이디어 생성하기 및 아이디어 평가하기	반응 형성하기 및 반응 명료화하기
(2) 다양한 소재 활용 확인하기			
(3) 중심소재 변형하기	시적 체험의 수직적 확대	아이디어 적용하기	반응 심화하기
(4) 갈래 정하기			
(5) 주인공 및 화자 창조하기			
(6) 순서 바꾸어서			

이야기 만들기		
(7) 줄거리 수정하기	아이디어 평가하기	반응 명료화하기

[표-7] 내면화 중심 교수·학습 과정

(1) 상상력(아이디어) 나누기 단계에서는 설화 모티프 시를 바탕으로 아이디어를 나누고 작품에 대한 감상 및 소재의 상징성 등 다양한 의견을 교류하는 과정이다. 이를 위해서는 앞의 단계에서 작품 이해 및 전개과정 학습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학습자 간에 자신의 감상 및 주목해서 읽은 부분, 각자 이야기를 이러한 방향으로 다시 새롭게 각색해보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다. 학습자는 시상 전개 과정에 필연성이나 암시를 추가하거나 다른 소재나 인물을 등장시켜 보기도 하고, 이야기를 풀어서 자신의 경험을 나누기도 할 수 있다. 모듬원 간에는 현대로 시간적 배경과 공간적 배경을 옮겼을 때는 어떻게 변용이 될 수 있는가하는 다양한 의견을 교환해 볼 수 있다.

(2) 다양한 소재 활용 확인하기 단계는 학습자 개개인 스스로가 소재의 다양성을 확인하고 스스로 독자가 아닌 작가가 되어 창작할 수 있는 다양한 재료를 준비하고 생성하는 단계라 할 수 있다. 앞의 단계에서 나눈 의견과 다른 학습자의 반응 및 의견을 참고하거나 수정해서 자신의 작품을 창작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는 단계다.

(3) 중심소재 변형하기 단계는 중심소재를 대신할 수 있는 소재를 찾는 단계다. 단순하게 같은 성질이나 성격을 지닌 소재로 변형해도 좋고, 시의 정서나 상황, 전개과정을 고려해서 새로운 소재로 바꾸어도 좋다. 예를 들어, 「견우의 노래」에서 ‘은하물’을 ‘오작교’로 바꾸어 본다거나 재회의 상황을 중심 소재로 변형해 볼 수 있다.

(4) 갈래정하기 단계는 학습자가 변형하거나 새롭게 바꾼 소재를 활용

해 적절하게 표현할 수 있는 갈래는 정하는 단계다. 이 단계에서는 갈래에 따른 특징을 파악하고 새롭게 적용해서 표현할 갈래를 학습하고 전체적인 줄거리나 전개과정을 개괄적으로 짚는다.

(5) 주인공 및 화자 창조하기 단계는 학습자가 정한 갈래에 따라 서술자나 화자, 주인공을 설정하는 단계다. 이 단계에서는 원래 작품의 화자나 주인공의 내면 심리를 충분히 이해하고, 학습자가 다른 소재나 전개과정을 적용하여 다른 인물을 창조해 내고, 인물을 둘러싼 배경이나 사건을 구상해보는 단계다.

(6) 순서 바꾸어 이야기 만들기 단계는 서서구조나 이야기의 흐름을 뒤 바꾸거나 생략하거나 인과관계를 분명히 하기 위해 첨가해 줄거리를 완성하는 단계다.

(7) 줄거리 수정하기 단계는 작품을 다른 학습자와 교환하여 읽고 작품에 대한 의견 교환이 이루어지는 단계다. 다른 학습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용하고 자신의 작품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나면 작품의 흐름을 수정하고 개연성이나 진실성 등을 분명히 드러낼 수 있도록 수정하여 작품을 완성하는 단계다.

내면화 과정 7단계는 순서대로 해야 하는 규칙은 아니다. 상황과 교육과정 상 단계를 생략하거나 순서 바꾸기 및 추가할 수 있다. 장르 선정 및 소재 활용에 따라 수업과정을 유연하게 조절할 수 있다.

앞에서 살펴본 설화모티프 시 교육의 방법의 3단계와 세분화된 내면화 단계를 종합하여 설화모티프 시 수업의 모형을 크게 5단계로 설정해 보았다. ‘Ⅰ. 준비단계 → Ⅱ. 내용이해단계 → Ⅲ. 내용확인단계 → Ⅳ. 내면화단계 → Ⅴ. 평가 단계’ 과정으로 세분화했다. 수업도입 부분인 ‘준비단계’에서는 학습목표와 학습내용, 과제 및 평가, 보조자료 등을 확인하는 단계이며, ‘내용이해단계, 내용확인단계, 내면화단계’는 수업내용을 전개하

는 단계로 설화모티프 시에 대한 전반적 이해와 분석, 학습자 주도의 상상력 확장을 발휘하는 단계이고, 수업 마무리 단계로써 ‘평가단계’를 설정해서 모형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설화모티프 시 수업 모형]

I. 준비단계

1. 설화모티프 시 학습목표 인지
2. 학습내용 및 과제 확인 및 분석
3. 평가내용 확인
4. 보조자료 확인

II. 내용이해단계

1. 설화모티프 시의 내용 이해
2. 수용한 설화 제시 및 전개과정 찾기

III. 내용확인단계

1. 수용된 시와 설화모티프의 비교 분석
2. 작가가 주목해서 변용한 부분 찾기

IV. 내면화단계

1. 상상력(아이디어) 나누기
2. 다양한 소재활용 확인하기
3. 중심소재 변형하기
4. 갈래 정하기
5. 주인공 및 화자 창조하기
6. 순서 바꾸어서 이야기 만들기
7. 줄거리 수정하기

V. 평가단계

1. 교사 평가: 인지적 내용 이해 평가 및 과정 평가
2. 자기 평가: 정의적 영역 자기 평가
3. 동료 평가: 다른 학습자와 작품의 내용영역 평가

4. 평가 의견 교환

[표-8] 설화모티프 시 수업 모형

설화모티프 시의 수업 모형은 크게 ‘준비단계→내용이해단계→내용확인 단계→내면화단계→평가단계’로 이루어진다. 내용이해가 선행되고 설화모티프 시에 대한 심화 및 확장단계인 소재체험하기 단계로 이어져 작품을 창작하거나 창작이 이루어 질 수 있는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단계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교사의 인지적 영역에 대한 평가와 학습자의 수업과정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으며, 자기 스스로 평가함으로써 다른 학습자의 평가와 비교할 수 있도록 했다.

2) 교육방안

준비단계는 설화모티프 시의 학습에 대한 선행과정이라 할 수 있다. 학습자들에게 설화모티프 시를 왜 배워야 하는가에 대한 학습목표를 인지시키고 배울 내용에 대해 학습자들은 스스로 무엇을 해야 하며,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 자신의 경험이나 지식을 상기하도록 한다. 이후, 교수자는 학습자에게 평가 방법을 설명해야 한다. 이는 학습자의 학습에 대한 적극성을 야기하고, 동기유발을 할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한다.

설화모티프 시 내용 이해단계는 설화모티프 시의 의미를 이해하는 단계이다. 시에 대한 이해가 우선되어야 원전인 설화를 보고 어떠한 소재가 활용되고 변용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학습자는 이 단계에서 시의 시상 전개 과정과 화자 및 소재의 의미를 파악한다. 또한 교수자는 단원의 학습목표 및 소단원 학습목표를 중심으로 설화모티프 시를 가르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설계하는 단계이기도 하다. 교수자는 ‘견우의 노래’의

내용에 비추어 ‘견우’라는 설화 인물에 대한 배경 지식을 활성화하고, 설화를 바탕으로 학습자의 스키마를 불러일으키고 시에 대한 흥미와 학습동기를 유발해야 한다. 이는 설화모티프 시 교육 방안 뿐 아니라, 모든 학습에 있어 중요한 학습요소로 작용한다.

설화모티프 시 내용 확인단계에서 학습자는 설화모티프 시와 원전인 설화를 비교·분석하고, 작가가 주목해서 변용하고자 했던 부분을 찾아서 작가는 왜 이 부분에 주목해서 설화모티프 시를 창작했는지 확인하는 단계라 할 수 있다. 작가의 의도를 확인하고 작가는 왜 이러한 부분에 주목해서 작품을 창작했는지 생각해보고 설화모티프 시를 창작하는 기본 내용을 파악하는 단계라 할 수 있겠다.

내면화단계는 설화모티프 시의 소재가 다양하게 변용될 수 있고, 다른 학습자의 아이디어와 의견을 교환하고 다양한 소재의 활용 가능성을 확인하는 단계라 할 수 있다. 수업과정에서 학습자들은 모둠을 형성하여 원전 설화를 통해 얻은 다양한 아이디어를 모둠원과 함께 의견을 교환하면서 자신의 아이디어 외에 또 다른 소재를 활용하여 작품을 창작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소재에 대한 다양성을 확인하고 학습자 개인이 창작자가 되어 작품을 써보거나 구상하는 단계다. 학습자는 갈래를 정하고 작품의 외적 요소인 주제, 구성 등을 설정해보고 주인공과 화자, 인물들의 배경 및 사건을 자신이 설정한 소재와 주제에 맞도록 창조해내고, 또는 원전인 설화의 모티프나 서사전개과정을 앞뒤로 바꾸어서 이야기를 재구성해볼 수 있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자신이 구성하고 창작한 작품을 수정해 본다.

마지막 단계인 평가단계는 교사와 학습자 자신, 다른 학습자들의 평가로 이루어진다. 교사는 인지적 능력을 평가하는 일종의 형성평가를 실시하기도 하고, 작품을 창작함에 있어서 학습자 개개인에 대한 과정평가를 실시한다. 학습자도 자기 스스로 작품의 구성과 주제의 명확성과 다른 학

습자들이 자신의 작품을 읽었을 때, 얼마나 잘 전달되는지에 주목해서 작품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동료학습자들도 자신의 작품이 아닌 다른 학습자의 작품을 읽고 주제가 무엇인지, 활용된 소재와 인물과 배경 및 사건 등의 연관관계에 대한 내용적 측면에서 평가하고, 평가에 대한 모둠원이나 평가자들 사이의 의견을 교환하는 단계라 할 수 있다.

나. 설화모티프 시 교수·학습 지도안과 수업의 실제

- 「견우의 노래」를 중심으로-

1) 「견우의 노래」에 대한 이해

‘견우직녀 전설’은 이미 5세기에 고구려 백성들 사이에 널리 알려져 있었다. 5세기 초에 건축된 고구려의 ‘덕흥리 무덤 벽화’에는 ‘견우직녀 전설’을 그림으로 그려 놓았다. 무덤의 앞 칸 남쪽 천장에는 은하수를 사이에 두고 소를 끌고 가는 견우와 검정개를 데리고 서 있는 직녀를 그려 놓았는데, 그 모습이 살아 있는 듯하다. 이것은 이 전설이 5세기 이전 고구려 사람들 사이에서 널리 전해지고 있었다는 것을 말해준다.

우리나라 봉건 시기 문인들은 시에서 견우와 직녀를 적지 않게 노래하였다. 13세기 문인인 이규보가 이 전설을 토대하여 지은 서정시 ‘칠월 칠석에 비가 내려(七月七夕雨)’는 비교적 발전된 대표적인 것이다.

‘견우와 직녀 이야기’를 주제로 하여 창작된 이 시는 오늘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전설과 내용이 거의 같다. 우리 시대에 와서 정리한 전설집에서 볼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 이 전설의 기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별나라에게는 인물이 아름답고 천을 잘 짜는 직녀라는 선녀가 있었다. 그가 짠 천에는 달과 꽃, 새들이 수놓아져 있어 별나라의 진귀한 물건이었다. 직녀는 어느덧 자라 이웃 별나라의 목동과 사랑하는 사이가 되었으며 그들은 이어 혼인하였다.

견우와 직녀는 혼인한 뒤 사랑에 취하여 천을 짜는 것도, 소를 모는 것도 잊고 서로 곁을 떠나지 않고 함께 있었다. 별나라 왕은 잠시 자기 직분을 잊고 사랑으로 하여 일하지 않고 놀고 있는 그들을 용서하려 하지 않았다. 왕은 넓은 은하수를 사이에 두고 견우와 직녀를 갈라놓았다. 그들은 거기에 각각 천을 짜고 소를 몰다가 일 년에 단 한 번 칠월칠석날에만 만나도록 허락하였다. 기다리던 칠월칠석날이 돌아왔으나 은하수를 건널 수가 없어 은하 가에서 서로를 부르며 애끓는 만남에 눈물만 흘렸다.

그리하여 견우직녀가 흘리는 슬픔의 눈물은 하늘 아래 지상 세계에 비가 되어 내렸다. 그때는 한창 곡식이 여무는 계절이어서 지상언제 때 아닌 장마로 하여 하늘을 원망하였다. 지상 세계에서는 천기를 보는 관리가 있어 왕에게 그 사연을 알려 견우와 직녀가 흘리는 눈물이라고 하였다. 그리하여 왕은 하늘을 자유로이 날아오를 수 있는 까치를 불러 은하수에 다리를 놓아 주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견우와 직녀는 까치가 놓아준 오작교로 서로 만나게 되었다.⁵⁶⁾

이 전설에 인연하여 칠월칠석날 아침에 내리는 비는 견우와 직녀가 서로 마주보며 흘리는 애끓는 눈물이고, 낮에 내리는 비는 만남이 기뻐서 흘리는 눈물이며, 하룻밤 지나고 새벽에 내리는 비는 이별이 슬퍼서 흘리

56) 김부식 외, 리상호 외 옮김, 『거북아 거북아 수로를 내 놓아라』 (겨레고전문학선집17), 보리, 2006, 98~100면.

는 눈물이라고 한다.

견우직녀 전설 가운데에는 주인공이 왕자와 공주로 설정된 것도 있다. 이것은 왕이나 왕자, 공주가 가장 훌륭하고 아름다운 인간을 상징하는 표현으로, 흔히 설화에서 써오는 형상적 허구에 지나지 않는다. 이름 그대로 ‘견우’는 소를 끄는 목동이며, ‘직녀’는 천을 짜는 여성이다. 전설은 현실 생활에서 벌어지는 인간관계를, 하늘 세계를 무대로 설정하고 환상과 의인화의 수법으로 현실 생활에서 체험하는 인간의 생활과 사상, 감정을 진실하게 펼쳐 보인다.

전설에서 견우와 직녀의 형상은 착취 사회에서 지배 계급의 전횡과 약탈로 하여 또는 뛰어넘을 수 없는 신분 장벽으로 하여 그리고 착취 계급이 강요하는 부역 등 이러저러한 사회적 요인으로 하여 서로 가정을 이루지 못하고 생이별을 당해야 했던 인간들의 운명과 생활에 대한 예술적 구현이다.

이 전설은 주제, 사상의 보편성, 현실 반영의 진실성으로 하여 오랜 세월 백성들 속에서 구전되어 왔으며, 견우와 직녀는 역대 소설과 시가들에서 사랑과 만남과 이별에 대한 상징으로 사랑받았다.

서정주의 제2시집 『귀촉도(歸蜀途)』 (선문사(宣文社), 1946)에는 총 24편이 실려 있다. 이 중에서 「귀촉도(歸蜀途)」, 「서귀(西歸)로 간다」가 귀촉도 전설(접동새 설화)를 수용하고 있고, 「견우(牽牛)의 노래」는 견우직녀 설화를, 「누님의 집」은 지하대적퇴치설화를 수용하고 있다.⁵⁷⁾

우리들의 사랑을 위하여서는
이별이, 이별이 있어야 하네.

57) 주옥, 「서정주 시의 설화수용양상 연구」, 서강대 석사학위논문, 1983, 14면.

높았다 낮았다 출렁이는 물살과
물살 몰아 갔다 오는 바람만이 있어야 하네.

오! 우리들의 그리움을 위하여서는
푸른 은하물이 있어야 하네.

돌아서는 갈 수 없는 오롯한 이 자리에
불타는 홀몸만이 있어야 하네.

직녀여, 여기 번쩍이는 모래밭에
돌아나는 풀썩을 나는 세이고……

허이연 허이연 구름 속에서
그대는 베틀에 북을 놀리게.

눈썹 같은 반달이 중천에 걸리는
칠월 칠석이 돌아오기까지는

검은 암소를 나는 먹이고
직녀여 그대는 비단을 짜세.

—서정주, 「견우의 노래」

이 시는 견우와 직녀에 대한 전래의 설화를 바탕으로 하여 이별의 아픔을 이겨 낼 때 사랑은 더 커지고 성숙할 수 있다는 주제를 표현한 작품이다. 견우를 시적화자로, 직녀를 작품 안에 내포된 청자로 설정했다. 그러

나 이 작품은 화자와 청자인 견우와 직녀의 사랑에 대한 격려의 노래로 단순하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 이별을 통해 사랑이 더 성숙하다는 이 시의 주제는 설화 속의 두 인물에게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인생과 사랑에 적용되는 보편적인 깨달음인 것이다.

‘우리들의 사랑을 위하여서는/ 이별이 있어야 하네’로 시작하는 이 시는 역설적인 표현을 통해 더 성숙한 사랑을 위해서는 이별의 고통을 견뎌야 한다는 인식하고 이 고통을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태도를 보인다. 전체적으로 화자는 ‘직녀’에게 쓰는 편지나 부르는 노래로 작품을 형성하고 있는데, 그들 앞에 가로놓인 ‘은하물’은 ‘물살’, ‘바람’과 더불어 이별의 상황을 형상화해주는 소재로 활용되고 있다. 이별이 극심한 고통이라는 것은 ‘불타는 홀몸’이라는 부분에서 극대화된다. 그러나 ‘직녀여’라고 부르며 화자는 서로의 자리에서 ‘베틀에 북을 놀리’고, ‘풀썩을 세’고, ‘검은 암소를 먹이’면서 다가올 ‘칠월 칠석’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⁵⁸⁾ 그들은 더 성숙한 사랑을 위해서는 이별의 시련을 참고 견디면서 자신의 자리에서 주어진 본분에 충실한 태도를 보인다.

‘견우와 직녀 설화’를 모티프로 ‘서정주’는 화자와 청자를 설정하고, 이별을 수용하는 태도를 작품으로 형상화했다. 이는 학습자들에게 다양한 작품으로 창작해 볼 수 있고 작품을 생산할 좋은 기회를 제공하고, 설화 모티프 시가 가지는 ‘이야기의 힘’을 통해 새로운 작품을 탄생시킬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할 수 있다.

2) 교수 · 학습 지도안

단원명: 1. 문학작품의 수용과 소재체험

58) 윤재웅, 『미당서정주』, 태학사, 1998, 203면.

<p>학습목표: 1. 설화모티프 시의 개념과 특성을 안다. 2. 설화모티프 시를 읽고 작품 이해하고, 원전과 비교·분석할 수 있다. 3. 원전을 변형하여 새로운 작품을 창작해본다.</p> <p>소단원: 1. 견우와 직녀 학습활동-서사전개과정 파악하기, 주4인공의 심리추측하기, 주요소재확인하고, 다른 소재로 변형하여 주인공의 심리 대입해보기</p> <p>2. 견우의 노래 학습활동-화자와 청자 찾기, 화자의 심리추측하기, 주요소재 찾고, 소재의 의미 파악하기, 견우직녀설화(원전)과 비교·분석하기</p> <p>통합활동: 「견우의 노래」의 학습활동을 바탕으로 새로운 작품을 창작해 보기</p>
--

[표-9] 설화모티프 시 단원 설정 예시

대단원과 소단원, 통합활동을 설정하고 그에 따른 교수·학습 지도안을 작성해 보도록 한다. 대단원 제목은 ‘문학작품의 수용과 소재체험’으로 문학작품의 수용과정을 확인하고 소재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학습자의 작품 내면화에 중점을 둔 설정이다. 소단원은 작품의 수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소단원 (1)은 설화 ‘견우와 직녀’를 소단원 (2)는 「견우의 노래」를 설정하여 원전이 변용되는 과정과 그 실재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통합활동에서 새로운 작품을 창작할 수 있도록 하는 교재로 구성해보았다. 다음은 「견우의 노래」를 중심으로 설화모티프 시 교수·학습 지도안이다.

대단원	1.문학작품의 수용과 소재체험	소단원	(2)견우의 노래	차시	6/10
-----	------------------	-----	-----------	----	------

학습 목표	1. 설화모티프 시의 개념과 특성을 안다. 2. 「견우의 노래」의 내용을 이해하고, 원전의 내용과 비교 분석할 수 있다. 3. 「견우의 노래」를 통해 새로운 문학 작품을 창작할 수 있다.			
학습 형태	◎ 협동 학습 ◎ 문답 학습 ◎ 개별 학습 ◎ICT 활용 학습			
학습 자료	교 사		학 생	
	PPT, 학습지, 교과서, 평가지		학습지, 조별협동학습, 선행지식 활용	
단계 (시간)	학습 내용	교수-학습활동		자 료
		교 사	학 생	
도입 (15분)	준비단계 (동기유발 및 학습목표 제시)	-인사한다. -동기유발 -지난시간에 학습했던 「견우와 직녀」의 일부분을 아동용 만화<견우와 직녀>를 통해 상기한다. -장면을 통해 본 인물의 심리에 대해서 간단히 질문하고 답한다.		
		1. 설화모티프 시 학습목표 인지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1. 설화모티프 시의 개념과 특성을 안다. 2. 「견우의 노래」의 내용을 이해하고, 원전의 내용과 비교 분석할 수 있다. 3. 「견우의 노래」를 통해 새로운 문학 작품을 창작할 수 있다. </div> 2. 학습내용 및 과제 확인 및 분석 -학습자들이 어떤 내용을 배울 것인지, 이 단원의 수업을 통해 어떠한 능력을 함양할 수 있는지 설명하고 학습자들은 이에 대한 과제를 분석한다.		

		<p>3. 평가내용 확인</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1. 교사 평가: 인지적 내용 이해 평가 및 과정 평가</p> <p>2. 자기 평가: 정의적 영역 자기 평가</p> <p>3. 동료 평가: 다른 학습자와 작품의 내용 영역 평가</p> <p>4. 평가 의견 교환</p> </div> <p>4. 보조자료 확인</p>	
전개	<p>내용 이해 단계</p> <p>내용확인 단계 (ICT59)활용)</p>	<p>-내용이해단계</p> <p>1. 설화모티프 시의 내용 이해 - 「견우의 노래」에 대한 시상전개과정 및 화자의 심리 및 중심소재의 의미와 역할 등을 파악한다.</p> <p>2. 수용한 설화 제시 및 전개과정 찾기 - ‘견우와 직녀’설화를 바탕으로 「견우의 노래」에 반영된 전개과정을 찾아본다.</p> <p>-내용확인단계</p> <p>1. 수용된 시와 설화모티프의 비교 분석 - 확장된 장면이나 생략되거나 축소된 장면을 찾아보도록 한다. 원전에서 설화모티프 시로 변용될 때 어떠한 과정을 거쳤는지 살펴볼 수 있도록 지도한다.</p> <p>2. 작가가 주목해서 변용한 부분 찾기 - 설화모티프 시로 변용할 때, 작가가 가장 중요시한 부분에 대해 생각해보고, 학습자가 작품을 창작하려면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간접 경험 할 수 있도록 한다.</p>	

<p>내면화 단계</p>	<p>- 내면화단계</p> <p>1. 상상력(아이디어) 나누기 (반응 형성 및 반응 명료화 단계) -학습자는 몇 개의 모둠으로 나뉘어 장면별 또는 작품전체에 대해 「견우와 직녀」와 비교 분석한 내용에 대한 의견을 교환한다.</p> <p>2. 다양한 소재활용 확인하기 (아이디어 생성 단계) -의견을 나누고 교환하는 과정에서 학습자는 자신의 상상력을 발휘하고, 그것에 대한 모둠원의 평가나 의견을 공유한다.</p> <p>3. 중심소재 변형하기 (아이디어 생성 단계) -나눈 아이디어를 중심으로 새롭게 중심소재를 설정하고 그에 맞는 서술자나 화자, 줄거리를 짜보도록 한다.</p> <p>4. 갈래 정하기 (내면화 펼쳐 보이기 단계) -자신의 의도와 목적에 맞는 갈래를 정해서 계획하는 단계로 자신이 정한 갈래의 특성에 맞게 작품 창작 계획을 세워보도록 한다.</p> <p>5. 주인공 및 화자 창조하기 (내면화 수직적 심화 단계) -갈래에 맞는 주인공이나 주변인물, 화자나 청자 등을 설정하여 작품의 주제를 효과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관계를 설정해 보는 것이다. 학습자의 체험이나 경험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p> <p>6. 순서 바꾸어서 이야기 만들기</p>	
-------------------	--	--

		<p>(반응 명료화 및 반응 심화 단계, 아이디어 적용 단계)</p> <p>-서사과정을 활용하여 이야기의 앞뒤 순서나 주제에 맞도록 변형하고 새롭게 생성, 첨가하거나 생략 및 삭제하여 이야기의 열개를 짜도록 하고, 그에 맞추어 이야기를 창작해 나가도록 한다.</p> <p>7. 줄거리 수정하기 (아이디어 평가 및 수정 단계)</p> <p>-완성된 작품을 읽고 전반적 줄거리를 다시 한 번 읽으면서 어색하거나 불필요한 부분, 주제에 어긋나는 부분, 중복되는 부분, 빠진 부분 등을 확인하여 첨가하거나 유연하게 줄거리를 수정하도록 한다.</p> <p>-이후, 학습자들이 교환하여 작품을 감상하고 의견을 나누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한다.</p> <p>-학습자 상호간에 작품에 대한 평가를 하고, 서로의 작품에 대해서 감상을 간단히 써서 교환해 읽도록 한다.</p> <p>- 평가단계</p> <p>1. 교사평가: 인지적 내용 이해 평가 및 과정 평가</p> <p>2. 자기평가: 정의적 영역 자기 평가</p> <p>3. 동료평가: 다른 학습자와 작품의 내용영역 평가</p> <p>4. 평가의견교환</p>	
정리	내용정리 및 다음차시 예고	<p>▷학습내용정리</p> <p>◎배운 내용을 상기하며 수업을 마무리 한다.</p> <p>▷차시 수업내용 인지</p>	

59) 정보통신기술(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 활용교육(ICT 활용교육)은 각 교과와 교수·학습활동에서 정보통신기술을 도구나 매체로 활용하는 교육이다.(네이

[표-10] 설화모티프 시 교수·학습 지도안

3) 수업의 실제

교수자는 수업준비단계에서 소재활용의 다양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만화 「견우와 직녀」를 보여주거나 견우와 직녀 설화를 모티프로 한 다른 시 작품을 학습자에게 보여줌으로써 소재활용이 다양하게 이루어질 수 있음을 확인하게 하고, 학습자가 학습목표를 인지하면서 자연스럽게 동기유발과 학습할 내용이 연계될 수 있도록 한다. 교수자는 평가내용을 설명하면서 학습자에게 평가를 통한 동기유발까지 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후, 학습자는 자신의 경험이나 배경지식을 활용하여 다양한 작품에 대한 선행지식을 상기하여 새로운 작품을 창작할 수 있는 흥미와 호기심을 불러일으켜야 한다.

내용이해단계에서는 교수자는 모듈별로 아래와 같이 설화모티프 시의 주요 내용을 확인하고 서사과정을 분석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학습지를 나누어주고, 전개 과정을 분석하고 비교하고, 차이점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그리고 변용하는 과정에서 작가가 주목해서 활용한 소재를 확인하고 전개과정의 순서나 흐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우리들의 사랑을 위하여서는
이별이, 이별이 있어야 하네. (주요내용① 이별에 놓여있는 견우와 직녀의
상황이 드러남)

높았다 낮았다 출렁이는 물살과
물살 몰아 갔다 오는 바람만이 있어야 하네.

버 위키백과 참고).

오! 우리들의 그리움을 위하여서는
 푸른 은하물이 있어야 하네. (주요내용② 은하수를 사이에 두고
 건너편에 있는 견우와 직녀의 상황이 드러남)
 돌아서는 갈 수 없는 오묘한 이 자리에
 불타는 홀몸만이 있어야 하네.

직녀여, 여기 번쩍이는 모래밭에
 돌아나는 풀썩을 나는 세이고…… (주요내용③ 청자가 직녀임을 확인
 하고, 홀로 있는 상황에 대한 현실 인식을
 하고 있음을 확인함)

허이연 허이연 구름 속에서
 그대는 베틀에 북을 놀리게. (주요내용④ 직녀의 직업과 신분을 짐작함)

눈썹 같은 반달이 중천에 걸리는
 칠월 칠석이 돌아오기까지는 (주요내용⑤ 칠월 칠석에 만나는 상황을
 그대로 수용함)

검은 암소를 나는 먹이고
 직녀여 그대는 비단을 짜세. (주요내용⑥ 견우와 직녀가 칠월 칠석에
 만나기 위해서 해야 하는 일과 천명임을 깨달음)

[표-11] 설화모티프 시 주요내용 확인 및 서사 과정 분석 예시

내용이해단계에서 학습자는 「견우의 노래」에 대한 시상전개과정 및 화자의 심리 및 중심소재의 의미와 역할 등을 파악한다. 교수자는 수용한 설화 제시 및 전개과정 찾을 수 있도록 ‘견우와 직녀’설화를 제공하고, 이를 바탕으로 「견우의 노래」에 반영된 원전의 전개과정을 찾아본다.

내용확인단계에서는 교수자는 ‘견우와 직녀’설화를 제시해야 한다. 이에 따라 학습자는 원전과 설화모티프 시는 어떻게 다른지 어떤 부분을 수용하고 어떤 부분을 생략 또는 심화, 확장하여 작품을 변용했는지 확인하는

단계이다.

별나라에게는 인물이 아름답고 천을 잘 짜는 직녀라는 선녀가 있었다. 그가 짠 천에는 달과 꽃, 새들이 수놓아져 있어 별나라의 진귀한 물건이었다. 직녀는 어느덧 자라 이웃 별나라의 목동과 사랑하는 사이가 되었으며 그들은 이어 혼인하였다.

견우와 직녀는 혼인한 뒤 사랑에 취하여 천을 짜는 것도, 소를 모는 것도 잊고 서로 곁을 떠나지 않고 함께 있었다. 별나라 왕은 잠시 자기 직분을 잊고 사랑으로 하여 일하지 않고 놀고 있는 그들을 용서하려 하지 않았다. 왕은 넓은 은하수를 사이에 두고 견우와 직녀를 갈라놓았다. 그들은 거기에 각각 천을 짜고 소를 몰다가 일 년에 단 한 번 칠월칠석날에만 만나도록 허락하였다. 기다리던 칠월칠석날이 돌아왔으나 은하수를 건널 수가 없어 은하 가에서 서로를 부르며 애끓는 만남에 눈물만 흘렸다.

그리하여 견우직녀가 흘리는 슬픔의 눈물은 하늘 아래 지상 세계에 비가 되어 내렸다. 그때는 한창 곡식이 여무는 계절이어서 지상은 때 아닌 장마로 하여 하늘을 원망하였다. 지상 세계에서는 천기를 보는 관리가 있어 왕에게 그 사연을 알려 견우와 직녀가 흘리는 눈물이라고 하였다. 그리하여 왕은 하늘을 자유로이 날아오를 수 있는 까치를 불러 은하수에 다리를 놓아 주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견우와 직녀는 까치가 놓아준 오작교로 서로 만나게 되었다. (견우와 직녀 설화⁶⁰)-이탤릭체와 밑줄은 필자)

[표-12] 수용한 설화 제시 및 전개과정 찾기 예시①

교수자는 학습자에게 근원 설화를 제시하여 이야기의 서사과정에 밑줄을 긋게 하고, 이야기의 전개과정, 인물, 사건 및 배경을 찾을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주요 소재를 확인하고 서사구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도록 한다. 위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서사과정①) 별나라에는 천을 짜는 직녀와 이웃 별나라에는 소를 모는 견우가 살았다.
(서사과정②) 혼인을 한 후에는 각자의 본분을 잊고 나태하게 지낸다.
(서사과정③) 화가 난 왕은 은하수를 사이에 두고 둘을 갈라놓는다.

60) 김부식 외, 리상호 외 옮김, 앞의 책, 98~100면.

(서사과정④) 일 년에 한 번 칠월 칠석에 만날 수 있도록 허락하고,
 이 때 흘리는 눈물은 지상세계에는 비가 되어 내린다.
 (서사과정⑤) 왕은 오작교를 놓아주도록 허락하고 들은 이를 통해
 만나게 된다.

[표-13] 수용한 설화 제시 및 전개과정 찾기 예시②

교수자는 학습지나 학습활동을 이용하여, 중심 소재 및 소주제를 확인
 할 수 있는 활동을 추가적으로 할 수 있으며, 전개과정을 바꾸어보거나
 주요소재를 대신할 상황이나 맥락을 만들어서 새로운 소재를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도록 교육 방법을 구안해 볼 수 있다.

다음 단계는 설화를 수용한 시와 서사전개과정을 놓고 비교 분석하는
 단계다.

<p>우리들의 사랑을 위하여서는 이별이, 이별이 있어야 하네.</p> <p>높았다 낮았다 출렁이는 물살과 물살 몰아갔다 오는 바람만이 있어야 하네.</p> <p>오! 우리들의 그리움을 위하여서는 푸른 은하물이 있어야 하네.</p> <p>돌아서는 갈 수 없는 오롯한 이 자리 에 불타는 흙땀만이 있어야 하네.</p> <p>직녀여, 여기 번쩍이는 모래밭에 돌아나는 풀썩을 나는 세이고……</p> <p>허이연 허이연 구름 속에서 그대는 베틀에 북을 놀리게.</p>	<p>(서사과정①) 별나라에는 천을 짜는 직녀와 이웃 별나라에는 소를 모는 견우가 살았다.</p> <p>(서사과정②) 혼인을 한 후에 는 각자의 본분을 잊고 나태하 게 지낸다.</p> <p>(서사과정③) 화가난 왕은 은 하수를 사이에 두고 돌을 갈라 놓는다.</p> <p>(서사과정④) 일년에 한 번 칠 월 칠석에 만날 수 있도록 허 락하고, 이 때 흘리는 눈물은 지상세계에는 비가 되어 내린 다.</p> <p>(서사과정⑤) 왕은 오작교를</p>
--	---

<p>눈썹 같은 반달이 중천에 걸리는 칠월 칠석이 돌아오기까지는</p> <p>검은 암소를 나는 먹이고 직녀여 그대는 비단을 짜세.</p>	<p>놓아주도록 허락하고 들은 이를 통해 만나게 된다.</p>
--	--

[표-14] 설화모티프 시와 설화모티프의 비교 · 분석예시

학습자는 같은 이야기를 가지고 다른 장르로의 변용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확인할 수 있으며, 서사과정에서 주목한 부분과 달라진 부분 및 새롭게 상상하여 삽입한 부분 및 정서심화, 주목한 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작품을 분석하는 힘과 상상력의 다양성과 창의력을 기를 수 있는 좋은 학습과정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학습지>

-작가가 주목해서 변용한 작품의 내용을 확인해보자.

- 원전 설화와 설화모티프 시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차이를 보이는 부분을 찾아 써 보자.
- 그렇다면 작가가 주목해서 변용한 부분을 확인하고, 그렇게 창작한 의도를 짐작해 보자.
- 작가의 의도가 잘 드러나게 변용했는지 평가해보고, 자신의 경우에는 어떻게 변용했는지 써 보자.

[표-15] 설화모티프 시에서 작가가 주목해서 변용한 부분 찾기 예시

작가가 주목하는 내용은 분명 작가 자신의 의도에 따라 달라진다. 같은 소재로 이야기를 쓰지만, 그 내용과 구성이 다른 이유도 여기에 있다. 예를 들어, ‘견우의 노래’에서 ‘직녀’를 청자로 설정하여 화자와의 사랑을 위해서는 ‘이별’이 필요로 한다는 필연적인 이유를 제시하고, 슬픔 또한 이로 인해 어쩔 수 없는 것임을 이유로 들어 직녀를 위로하고 있는 상황임

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견우’의 노래 또한 자신의 사랑을 위해 ‘기다림’이라는 인고의 시간을 견뎌야 함을 강조하려는 의도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변용하여 제시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창작의 주체가 자신의 의도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필요한 과정이 바로 소재를 변화시키고, 주목해서 표현하고자 하는 속성을 달리 하는 것이다. 작품을 창작하고 변용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다.

작가가 주목해서 작품을 창작한 부분과 달리 학습자 스스로가 주목해서 변용하거나 새롭게 재구성해 볼 부분을 선택하여 실제적으로 작품 창작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한다. 화자를 새롭게 설정하거나 여러 소재를 대응해 보면서 원전의 내용에 집중하되, 현대적으로 변용할 수도, 전통적 인물들의 목소리를 드러낼 수도 있으며, 자신의 경험과 배경지식을 활용하여 재구성하면서 작품을 구상해보도록 한다.

다음은 내면화 단계이다. 모둠별로 상상력(아이디어) 나누기(반응 형성 및 반응 명료화 단계)를 통해 자신의 생각을 나누어볼 수 있는 단계로 학습자는 몇 개의 모둠으로 나뉘어 장면별 또는 작품전체에 대해 춘향전과 비교 분석한 내용에 대한 의견을 교환한다.

<학습지>

◎ 「견우직녀설화」와 「견우의 노래」의 내용을 비교·분석한 것을 바탕으로 또 다른 작품으로 만들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소재나 아이디어를 써 보자.

- ‘견우의 노래’를 ‘직녀의 노래’로 바꾸면 어떨까?
- 상황을 견디기 힘들다는 견우의 마음을 조금 더 강조하고 싶는데, 그 의미를 더 강하게 드러내면 어떨까?
- 은하수와 함께 오작교에 대한 묘사도 넣으면 어떨까?
- 어조를 바꾸면 어떨까?
- ‘은하수’를 장애물 말고, 서로를 만날 수 있도록 이어주는 의미로 바꾸어서 써보는 것도 재밌을 듯한데.
- ...

[표-16] 상상력(아이디어)나누기 예시

학습자는 다양한 의견을 미리 써보고 모둠원간 의견을 교환하도록 한다. 되도록 다양한 소재나 아이디어가 교환될 수 있도록 자유로운 분위기를 형성한다. ‘견우와 직녀 설화’를 바탕으로 창작한 다른 작품을 제시해 같은 소재를 통해 다르게 표현할 수 있음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

<읽어 읽기>

견우직녀도 이 날만은 만나게 하는 칠석날
 나는 당신을 땅에 묻고 돌아오네
 안개꽃 몇 송이 함께 묻고 돌아오네
 살아 평생 당신께 옷 한 벌 못 해주고
 당신 죽어 처음으로 배옷 한 벌 해 입혔네
 당신 손수 베틀로 짠 옷가지 몇 벌 이웃께 나눠주고
 옥수수밭 옆에 당신을 묻고 돌아오네
 은하 건너 구름 건너 한 해 한 번 만나게 하는 이 밤
 은하물 동쪽 서쪽 그 멀고 먼 거리가
 하늘과 땅의 거리인 걸 알게 하네
 당신 나중 흙이 되고 내가 훗날 바람 되어
 다시 만나지는 길임을 알게 하네
 내 남아 밭갈고 씨뿌리고 땀흘리며 살아야
 한 해 한 번 당신 만나는 길임을 알게 하네.

- 도중환, 「옥수수밭 옆에 당신을 묻고」

<읽어 보기>



2010년 9월부터 2011년 5월까지 총 34편으로 창작된 웹툰 ‘견우와 직녀’⁶¹⁾를 보고 원전에 대한 다양한 작품 창작의 가능성을 이해하고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한다.

[표-17] 「견우의 노래」와 관련된 다른 작품 예시

61) 웹툰 ‘견우와 직녀’는 설화의 내용을 판타지로 다시 탄생시킨 작품이다. 작가는 ‘유리아’이며, 웹 사이트 ‘네이버’에 34회 연작된 작품으로 평점 9.9를 기록하고 있다.

원전을 다양하게 변용하거나 수용하여 새롭게 작품을 창작한 다른 작품들을 감상하고, 폭넓게 작품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학습자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다음은 다양한 소재를 활용하여 중심소재를 변형하는 아이디어 생성 단계이다. 학습자는 의견을 나누고 교환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상상력을 발휘하고, 그것에 대한 모둠원의 평가나 의견을 공유한 후, 자신의 입장에서 소재를 활용하여 위와 같은 학습지에 새로운 소재를 활용한 시를 지어보도록 한다.

<학습지>

◎모둠원과 나는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다양한 소재를 활용하여 새로운 작품을 창작해 보도록 하자.

우리들의 을 위하여서는
 이, 이 있어야 하네.

높았다 낮았다 과
 몰아갔다 오는 만이 있어야 하네.

오! 우리들의 을 위하여서는
 이 있어야 하네.

돌아서는 갈 수 없는 오롯한 이 자리에
 만이 있어야 하네.

여, 여기 에

을 나는 세이고……

허이연 허이연 속에서
 그대는 에 을 .

같은 이 에 걸리는
 칠월 칠석이 돌아오기까지는

를 나는

여 그대는 을

(작가명)- 「 제목」

[표-18] 상상력(아이디어) 생성단계 예시

학습자는 새로운 소재의 활용의 가능성을 모듬원 간에 의견을 교환하고 학습자 스스로 다양한 소재활용의 가능성을 확인한다. 교수자는 이러한 과정에서 위의 학습지를 활용해 새로운 소재를 적용하여 작품을 창작하는 기초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다시 모듬원 간에 작품을 교환해서 읽을 수 있도록 한 후, 이를 평가에 기초로 활용할 수도 있다.

<학습지>

◎주제: 기다림으로 승화시킨 사랑

◎나눈 아이디어와 소재 활용하기를 통해 얻은 상상력을 바탕으로 갈래를 정하고, 새로운 중심소재, 이에 맞는 서술자나 화자, 상황, 배경을 작성해보자.

-갈래정하기: 시? 소설? 수필? 희곡? 시로 정해야겠다!!

-새로운 중심소재: 직녀의 입장으로 바꾸어서 시를 써볼까?

-서술자나 화자 정하기: 화자를 직녀로 정해서 직녀가 기다리면서 견우

에 대한 애정과 현실에 대한 순응적 태도를 보이도록 시의 내용을 바꾸고, 은하수에 대한 원망의 마음과 오작교에 대한 고마움을 전하는 직녀의 마음이 잘 드러나도록 해야겠다.

-상황이나 배경: 직녀가 혼자 앉아 칠월 칠석을 기다리면서 물레를 돌리고 있는 상황에 건너편 견우가 소를 열심히 끄는 모습이 보인다. 현실에 대한 인식하는 과정을 통해서 체념하는 전통적 여인의 모습을 보여주도록 해야겠다. 은하수에 대한 원망도 해보고, 일 년에 한 번 견우를 만날 수 있게 도와주는 오작교에 대한 고마운 표현도 잊지 않도록 하고, 며칠만 있으면 견우를 볼 수 있는 시간적 배경을 설정해 시간이 더디게 가는 답답해하는 상황을 시로 써보자.

[표-19] 내면화 펼쳐 보이기 예시

갈래정하기 단계에서는 학습자는 모둠을 통해 나눈 아이디어와 소재 활용하기 통해 얻은 상상력을 바탕으로 창작할 갈래를 정하고, 새로운 중심 소재를 설정하여 그에 맞는 서술자나 화자, 상황이나 배경을 짜보도록 한다.

내면화 과정에서 주제는 주어져야 한다. 이때 교수자는 배우고자 하는 시의 주제로 정해도 되며, 일정한 단어나 다른 주제로 바꾸어서 수업을 진행해도 상관없다. 같은 반의 학습자들은 모두 같은 주제로 작품을 완성해야 평가의 타당도를 높일 수 있다.

<학습지>

※ 앞에서 정한 갈래와 상황에 맞게 작품 속의 인물(서술자나 화자)을 창조해보자.

-서술자나 화자 정하기: 화자를 직녀로 정해서 직녀가 기다리면서 견우에 대한 애정과 현실에 대한 순응적 태도를 보이도록 시의 내용을 바꾸고, 은하수에 대한 원망의 마음과 오작교에 대한 고마움을 전하는 직녀의 마음이 잘 드러나

도록 해야겠다.
 -현실에 순응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직녀를 만나러 떠나려는 견우라는 인물을 설정하고 만날 수 있게 도와주는 조력자를 새롭게 창조해야겠어. 시점은 전지적 작가시점으로 해야지.

[표-20] 내면화 수직적 심화단계 예시

내면화 수직적 심화단계에서는 갈래에 맞는 주인공이나 주변인물, 화자나 청자 등을 설정하여 작품의 주제를 효과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관계를 설정해 보는 것이다. 학습자의 체험이나 경험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학습자는 학습지의 내용에서 화자를 창조해서 구체적인 내용까지 상상력을 발휘해 추측해보고 화자의 감정이나 심리를 이해하고 파악해 본다.

<p>(서사과정①) 별나라에는 천을 짜는 직녀와 이웃 별나라에는 소를 모는 견우가 살았다.</p> <p>(서사과정②) 혼인을 한 후에는 각자의 본분을 잊고 나태하게 지낸다.</p> <p>(서사과정③) 화가 난 왕은 은하수를 사이에 두고 둘을 갈라놓는다.</p> <p>(서사과정④) 일 년에 한 번 칠월 칠석에 만날 수 있도록 허락하고, 이 때 흘리는 눈물은 지상세계에는 비가 되</p>	<p>서사과정①을 직녀가 견우에 대한 흠모의 마음을 화자의 입을 통해 전해줄 수 있도록 하고 자신의 행동에 대한 경솔함을 후회하는 내용으로 바꾸도록 하자.</p> <p>서사과정②를 사랑에 눈이 어두워 본분을 잊은 자신과 견우에 대한 자책의 감정이 드러나도록 설정하자.</p> <p>서사과정③을 은하수에 초점을 맞추어 은하수에게 직녀의 원망과 한탄의 감정을 이입하여 은하수를 향해 자신의 현재 심정을 외치는 장면으로 바꿔야겠어.</p> <p>서사과정④를 자신의 눈물이 은하수보다 더 큰 흐름을 만든다는 과장법을 통해 슬픔을 강조하여 표현하고, 지상세계에서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기를 소망하는</p>
---	--

<p>어 내린다.</p> <p>(서사과정⑤) 왕은 오작교를 놓아주도록 허락하고 둘은 이를 통해 만나게 된다.</p>	<p>표현으로 쓰도록 하자.</p> <p>서사과정⑤를 오작교에 대한 고마움을 드러내고, 며칠 있으면 칠월 칠석임을 다시금 강조하고 기대하며 기다리는 마음으로 시상을 마무리해야겠다.</p>
--	--

[표-21] 반응 명료화 및 반응 심화 단계, 아이디어 적용 단계 예시

반응 명료화 및 반응 심화 단계에서 학습자는 서사과정을 활용하여 이야기의 앞뒤 순서나 주제에 맞도록 변형하고 새롭게 생성, 첨가하거나 생략 및 삭제하여 이야기의 열개를 짜도록 하고, 그에 맞추어 이야기를 구성해 나가도록 한다.

내면화의 마지막 단계인 줄거리 수정하기단계에서는 아이디어 평가 및 수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학습자는 완성된 작품을 읽고 전반적 줄거리를 다시 한 번 읽으면서 어색하거나 불필요한 부분, 주제에 어긋나는 부분, 중복되는 부분, 빠진 부분 등을 확인하여 첨가하거나 유연하게 줄거리를 수정하도록 한다.

이후, 학습자들은 교환하여 작품을 감상하고 의견을 나누어보는 시간을 가진다. 학습자 상호간에 작품에 대한 평가를 하고, 서로의 작품에 대해서 감상을 간단히 써서 교환해 읽도록 한다.

마지막 단계인 평가단계에서는 교사 평가와 학습자 평가, 동료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교사평가는 인지적 내용 이해 평가 및 과정 평가로, 학습지 등을 바탕으로 쓴 내용을 포트폴리오로 만들어서 평가할 수 있도록 한다.

<p><평가 예시 문항></p> <p>1. 이 시의 화자와 청자는 누구인가?</p>
--

2. 이 시에서 화자에게 장애물을 뜻하는 소재는?
3. 이 시에서 ‘견우’와 ‘직녀’의 이름의 의미는 무엇인가?
4. 화자가 이별 상황 속에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이라고 하는가?
5. ‘물살’, ‘바람’, ‘번쩍이는 모래밭’, ‘허이연 구름’의 의미를 2어절로 쓰면?

[표-22] 교사의 인지적 평가지 예시

또한 교수자는 학습자의 학습지를 거두거나 학습자의 포트폴리오를 확인하여 과정평가까지 실시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이후 모둠원간 평가 의견을 교환하고, 교수자 또한 학습자 개개인에 대한 피드백이 직접적 혹은 간접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자기 평가는 정의적 영역에서의 자기 평가로 스스로에게 점수를 주면서 작품 창작에 대한 자신의 태도와 능력 향상에 대한 평가가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한다.

평점 영역	상(5점)	중(3점)	하(1점)	점수
지식 (인지적)	학습목표를 충분히 인지하고, 새로운 작품을 내면화하는 과정에 대한 기능적인 면을 습득하고, 지식적인 부분도 학습하여 만족한다.	학습목표에 어느정도 인지했으며, 작품을 내면화하고, 지식적인 부분에 대한 확실한 자신감이 적고, 어느정도 학습목표를 달성했다.	학습목표에 대한 인지가 불분명하고, 작품을 내면화하는 기능 및 지식을 습득하지 못했다.	
내면화 (정의적)	작품을 내면화 하여 간접적 경험을 통해 작품의 화자나 서술자의 상황을 이해하고, 작품의 주제에 대해 공감할 수 있다.	작품을 내면화 하여 작품을 창작하긴 했으나, 완벽하게 작품에 대한 상황이나 주제를 공감하거나 이해를 완벽히 하지 못했다.	작품 내면화를 이루지 못하고 작품에 대한 파악이나 주제에 대한 이해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다.	
태도	수업과정의 모둠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으며, 다양하게 상상하고 작품을 창작하기 위해 노력하고, 성실하게 작품을 완성하였다.	수업에 있어, 모둠 활동에 비교적 적극적이지 못했고, 작품을 창작에도 주의 깊게 살펴보지 못한 부분이나 있으며, 성실도가 조금 부족하다.	수업과정의 모둠 활동에 소극적이고, 작품을 창작하는 과정에서도 생각과 느낌을 끌어내지 않고 수동적으로 수업에 임했으며, 성실하게 수업하지 못했다.

[표-23] 자기평가표 예시

학습자 스스로 평가한 점수와 교사의 평가를 비교하면서 학습자 개개인 별로 피드백을 한다면 더 좋은 평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단순히 평가라는 것이 상대적인 평가가 되기도 하지만 절대 평가로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평가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문학교육의 목표에도 합당하기 때문이다.

동료 평가는 다른 학습자와 작품의 내용영역을 평가하는 것이다. 평가의 객관성과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많은 학습자를 대상으로 평가가 이루어지면 더욱 좋다. 하지만 평가의 신뢰성을 위해 작품에 대한 학습자의 주제와 의도 등을 교수자가 제대로 알고 있어야 한다. 동료평가에서 주관성을 배제하기란 어렵기 때문이다.

<평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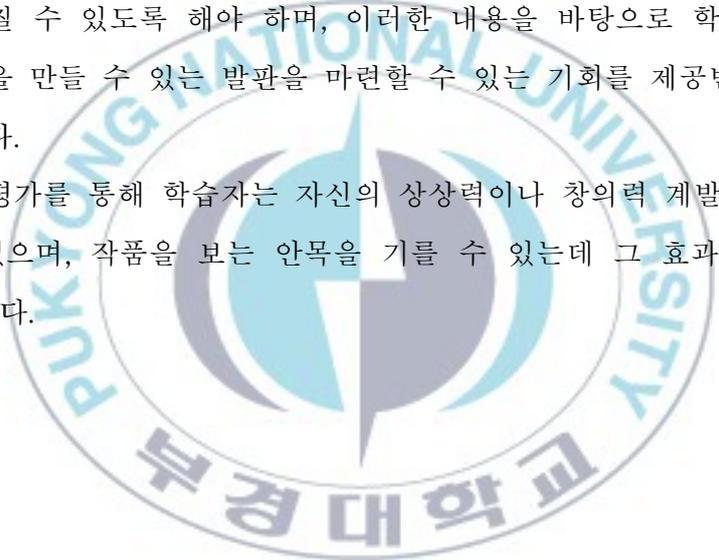
- ①주제가 잘 드러나도록 작품을 썼는가?
 - ②주제에 맞게 화자 및 서술자, 소재를 설정했는가?
 - ③배경설화를 모티프로 하여 상상력을 가미하고 있는가?
 - ④(시의 경우) 시의 운율이 잘 드러나고 있는가?
 - ⑤화자의 심리가 소재를 통해 적절하게 드러나는가?
- 위 문항을 각 1점씩으로 평가하여 아래 기준표에 맞게 평가란에 ‘대단, 양호,

미흡' 중 하나를 기록하고, 의견란에 쓰시오.				
대단(5~4점)	양호(3~2점)	미흡(1~0점)	평 가	
작품에 대한 의견				

[표-24] 모둠원 및 동료학습자간 평가표 예시

평가가 이루어지면 평가에 대한 학습자와 교사, 모둠원 간의 의견교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학습자는 더 나은 작품을 만들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평가를 통해 학습자는 자신의 상상력이나 창의력 계발에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작품을 보는 안목을 기를 수 있는데 그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겠다.



Ⅲ. 결론

본 연구는 설화모티프 시를 어떻게 가르치면 학습자에게 현재와 미래의 국어교육 목표에 도달할 수 있을까하는 의문에서 시작되었다. 국어교육에서 추구하는 ‘창의적 상상력’의 배양을 위해 설화가 지니는 가치가 매우 크다. 설화는 시간의 흐름을 고스란히 담고 있으며, 우리 민족 전통의 흔적을 간직한 소중한 유산이다. 설화는 인류 보편성과 민족의 역사성 및 창의력과 상상력을 체현할 수 있는 중요한 소재원이다. 또한 문학 장르별로 변용될 수 있는 소재원이 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창작된 설화모티프 시 교육 방법 민족적 역사성과 민족 문화의 고유성을 바탕으로 국문문학을 넘어 인류 보편적 문화의 원형 이미지를 보유하고 있는 문학의 보고라 할 수 있다. 본고에서 다룬 설화모티프 시 교육 방법 또한 원전 설화를 제재로 하여 민족 고유성과 인류 보편성을 학습하기 위한 바탕으로써 교육의 장에서 실현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토대로 설화모티프 시 교육 방법을 창의력의 능동적 확장을 위해 ‘소재체험하기’라는 내면화 중심 학습 방안을 제시하여 실제적 예를 통해 논의해보았다.

본론에서 2009개정 『문학』 교과서에 실린 설화모티프 시 수록 현황을 살펴본 결과, 전반적으로 설화모티프 시의 작품 수가 줄어들었다. 앞서 언급한 대로 설화는 학습자에게 창의력 및 상상력 발달과 언어 능력 향상에 기여하고, 다양한 소재를 체험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학습동기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또한 설화가 전통문화를 계승·발전할 수 있는 중요한 제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설화모티프 시가 줄어 든 것은 ‘상상력’과 ‘창의력’을 교육할 수 있는 문학 소재가 사라진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크다.

서정주의 설화모티프 시와 교과서의 <학습활동>을 바탕으로 현행 교과서의 문제점을 정리했다. 설화모티프 시가 지니는 가치와 의의가 제대로 학습자에게 전달되는 학습 방법으로 수록된 교과서는 드물었다. 2009개정 『문학』 교과서는 대부분 <학습활동>의 구성이 설화모티프 시의 원전 설화를 바탕으로 교육되지 않고 있으며, 설화모티프 시가 갖는 가치와 의의를 중심으로 학습자를 교육하고 있지 않는 문제점이 드러났다.

학습자가 설화모티프 시와 배경 설화인 원전 설화를 학습하면서 갈래 교섭을 통해 자연스럽게 운문과 산문이 영향을 주고받고 있음을 자연스럽게 학습하고, 설화적 상상력과 창의력을 바탕으로 시적 상상력을 신장할 수 있다. 또한 학습자는 설화모티프 시에 대한 학습을 통해 민족 고유성과 세계 보편성의 경계에서 이루어지는 ‘문학교육’을 체험할 수 있다. 이것이 설화모티프 시의 교육적 의의라 할 수 있다.

설화모티프 시 교육은 원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설화모티프 시에 사용된 설화모티프를 찾고 시에 반영된 원전의 내용과 비교·분석하고, 설화모티프 소재 활용의 다양성을 확인하고 확장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한다. 이러한 설화모티프 시 교수-학습 방법을 체계화 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이를 위해 창의성 계발 학습 및 반응 중심 학습 모형을 적용하여 내면화 중심 교수·학습모형—상상력(아이디어) 나누기, 다양한 소재 활용하기, 중심소재 변형하기, 갈래정하기, 주인공 및 화자 창조하기, 순서 바꾸어서 이야기 만들기, 줄거리 수정하기—을 설정하고, 단계별 학습 방안을 제시했다. 실제 설화모티프 시 교육 방안에서는 ‘소재체험하기’를 통해 모듈별 학습자의 아이디어를 나누고 다양한 소재활용의 가능성을 확인하고, 중심소재를 변형하거나, 인물, 배경, 사건 등을 구성하여 창의력과 상상력을 신장시킬 수 있는 교수·학습 방법을 설계해 보았다. 그리고 평가는

학습자 스스로의 평가와 교사의 과정 및 인지적 평가, 다른 학습자의 평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교수·학습 방법을 서정주의 「견우의 노래」에 적용하여 실제 수업의 예시를 제시했다.

본 연구의 한계는 실제 교육현장에서 교육 방법을 적용해보지 못했다는 점과 학생들의 설화모티프 시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지 못하고 교수자의 입장에서 교육하는 방안을 논했다는 점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또한 설화모티프 시를 활용한 인류 보편성과 민족 고유성을 배양할 수 있는 양식으로써 전인류적이고 초국가적인 문학 교육 방법에 대한 연구까지는 나아가지 못했다. 본고에서 제시한 설화모티프 시 교육 방법을 실제 교육현장에서 적용해보고 학습자의 창의력과 상상력 신장 정도 및 설화모티프 시에 대한 흥미도 변화에 대한 연구와 문학 교육에 있어 인류 보편적이고 민족 고유성을 체현할 수 있는 교육 방법에 대한 연구는 미결 과제로 남겨 두고자 한다.



<참고 문헌>

1. 기본서

교육과학기술부, 「2009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 2011년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교육과학기술부, 『국어과 교육과정』, 2011.

고형진 외, 『고등학교 문학 I』, (주)천재문화, 2011.

_____ 외, 『고등학교 문학 II』, (주)천재문화, 2011.

권영민 외, 『고등학교 문학 I』, (주)지학사, 2011.

박중호 외, 『고등학교 문학 II』, (주)창비, 2011.

박영민 외, 『고등학교 문학 I』, (주)비상교육, 2011.

유병환 외, 『고등학교 문학 I』, (주)비상교평, 2011.

윤석산 외, 『고등학교 문학 I』, (주)교학코퍼레이션, 2011.

윤여탁 외, 『고등학교 문학 I』, (주)미래엔, 2011.

조남현 외, 『고등학교 문학 I』, (주)교학사, 2011.

2. 단행본

강재철, 『한국설화문학의 탐구』, 단국대학교 출판부, 2009.

구인환 외, 『문학교육론』, 삼지원, 2009.

김대행 외, 『문학교육원론』, 서울대학교출판부, 2000.

김열규 외, 『미당연구』, 민음사, 1994.

김용직 외, 『문학의 이해』, 방송대 출판부, 1988.

- 김재홍, 『한국현대시인연구』, 일지사, 1986.
- 김준오, 『문학사와 장르』, 문학과 지성사, 2000.
- 박윤우, 『현대시와 문화교육』, 푸른사상, 2011.
- 오세영, 『한국현대시인연구-20세기 전반기를 중심으로』, 월인, 2003.
- 오정국, 『시의탄생, 설화의 재생』, 청동거울, 2002.
- 윤재웅, 『미당서정주』, 태학사, 1998.
- 장덕순, 『한국설화문학연구』, 박이정, 1995.
- 정신재, 『한국 현대시의 신화적 원형 연구』, 국학자료원, 1995.
- 조동일, 『한국문학통사』 1, 지식산업사, 1994.
- 조동일 외, 『구비문학개설』, 일조각, 2006, 35면.
- 최미숙 외, 『국어 교육의 이해』, 사회평론, 2009.
- 프리드리히 W. J 셸링, 김윤상 외 역, 『신화철학』 1, 나남, 2009.
- M. 엘리아데, 이은봉 역, 『신화와 현실』, 성균관대 출판부, 1985.
- V. 프로프, 박전열 역, 『구전문학과 현실』, 홍성사, 1990.
- Northrop Frye, 김병욱 외 역, 『문학과 신화』, 대현원서출판, 1981.
- S. N. Grebstein, 이은봉 외 역, 『문학과 신화』, 대람, 1981.
- 김부식 외, 리상호 외 역, 『거북아 거북아 수로를 내 놓아라』 (겨레고전 문학선집17), 보리, 2006.

3. 일반논문 및 평론

- 고영화, 「‘다시쓰기’활동의 비평적 성격에 대하여」, 『문학교육학』 3, 대학사, 1999.
- 장석규, 「구비문학 교육 현실의 진단과 처방」, 『문학과 언어』 21, 문학과 언어학회, 1999.

- 공광규, 「현대시의 『삼국유사』 설화 수용 방법」, 『너머』 통권 2호, 2007년 가을.
- 김경복, 「한국 현대 설화시(說話詩)에 대한 소고(小考)」, 『현대문학 이론연구』 9권, 현대문학이론학회, 1998.
- 김윤식, 「역사의 예술화-신라정신이라는 괴물을 폭로한다」, 『현대문학』 1963. 10.
- 김선학, 「설화의 시적 수용-질마재 신화를 중심으로-」, 『한국문학연구』 제3집, 1981.
- 오세영, 「서정주의 영원과 현실」, 『한국문학연구』 제17권, 1995. 3.
- 이광호, 「영원의 시간, 봉인된 시간」, 『작가세계』 제6권 제1호, 1994. 2.

4. 학위논문

- 권순아, 「현대시의 설화수용 양상과 교수법 연구-춘향설화, 처용설화, 지귀설화 수용을 중심으로-」, 성신여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 김은진, 「서정주 시의 설화 수용양상과 교육적 활용 방안에 대한 연구: 『新羅抄』를 중심으로」, 고려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1.
- 노경아, 「설화모티프 시의 교육 방안 -제7차 <문학> 교과서의 서정주 시를 중심으로-」, 단국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 노현중, 「현대시에 나타난 ‘춘향’모티프의 수용 양상 연구-옥중(獄中)장면을 중심으로」, 아주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 서상현, 「설화 시 쓰기를 통한 중학교 설화 교육의 한 사례 연구」, 단

- 국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 모영숙, 「설화를 소재로 한 한국 현대시 연구」, 전북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 고정연, 「설화의 통합적 교육방법 연구-아기장수 우투리를 중심으로-」, 고려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 권선영, 「구술성을 바탕으로 한 설화교육」, 이화여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 박영희, 「서정주 시에 수용된 설화 수용 연구」, 충남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 박지원, 「시 교육 방법론-중학교 교과서 수록시를 중심으로」, 세종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 박화선, 「신동엽 시의 설화 수용 연구」, 동아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5.
- 오현정, 「서정주의 설화시 연구」, 한국교원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1.
- 우대권, 「설화 교육 연구-〈아기장수 우투리〉를 중심으로-」, 한국외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 이병숙, 「서정주 시 주제의 교수법 연구 -설화모티프 시를 중심으로-」, 성신여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 이성희, 「서정주 시의 설화 수용에 관한 연구 -『新羅抄』를 중심으로」, 동국대 석사학위논문, 2003.
- 주옥, 「서정주 시의 설화수용양상 연구」, 서강대 석사학위논문, 1983.

<국문초록>

설화모티프 시 교육 방법 연구

부경대학교 교육대학원

국어교육전공

추재훈

현재 문학교육은 한국문학의 전통과 지향점을 이해하고, 문학이 인류보편의 양식임을 이해하게 하는 동시에, 우리 민족의 삶의 모습을 총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설화’는 국어활동과 국어활동의 맥락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구실을 하고, 문학 전통을 찾아 이해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한다. 또한 역동적 구조로서 문학을 파악하고 민족 문학의 특수성을 이해하여 삶의 과정성과 총체성을 체현하는 데 기여한다.

학습자가 삶의 과정과 총체를 이해하고 체현하기 위해서 ‘설화’는 현재 문학교육에도 중요한 학습재(學習材)가 된다. 특히 『삼국유사(三國遺事)』와 『삼국사기(三國史記)』는 우리 민족의 정신과 삶을 반영하며, 여기에 수록된 설화들은 이야기 구조나 소재가 비슷하게 변형되거나 개작되어 오랫동안 이어져 내려왔다.

이러한 개작의 한 장르인 설화모티프 시는 현재 국어교육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교육 제재가 된다. 학습자는 설화모티프 시를 통해 문학 작품을 분석하는 능력을 기르고, 설화의 내용이 현대시로 어떻게 변형되는지 확인하는 과정을 통해 ‘창의성’을 신장한다.

한편, 학습자는 설화모티프 시의 의미를 능동적으로 파악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소재를 체험하고 확장하는 경험을 할 수 있다. 나아가 설화모티프 시 교육은 학습자들에게 새로운 작품을 창작할 수 있는 상상력의 발현과 표현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이는 설화모티프 시가 지닌 중요한 가치이다.

현재의 시 교육은 ‘시 장르 통합적 교육 방안’으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설화모티

프 시가 가지는 가치와 의의를 바탕으로 '설화모티프 시 교육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 이를 위해 다양한 이야기거리와 모티프를 접할 수 있는 '다양한 이야기'를 '감상'하는 학습이 선행되어야 한다. 즉, 설화모티프 시 교육 방안은 모티프인 원전 설화를 읽고 새롭게 창작된 작품에서 어떻게 변용이 되었는지 확인하고, 창의력을 신장시킬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본론-1에서는 2009개정 『문학』 교과서의 설화모티프 시 수록 작품 수용양상을 살펴보고, '서정주'시로 한정하여 설화모티프 시를 분석하였다. 각 교과서별 작품에 대한 수록 단위 목표 및 <학습활동>을 통해 현행 교과서의 설화모티프 시 교육 방법의 문제점과 설화모티프 시의 교육적 기초를 제시했다.

본론-2에서는 앞의 장에서 드러난 설화모티프 시 교육 방법의 문제점을 바탕으로 새로운 설화모티프 시 교육의 방법을 제시했다. 그 방법으로 '소재체험하기', 즉 내면화를 통한 설화모티프 시의 교육적 방법을 논해보았다.

설화 '견우와 직녀'를 제재로 한 서정주의 「견우의 노래」를 선택한 이유는 학생들에게 친숙한 작품이라는 점, 설화가 설화모티프 시로 변용 및 수용되는 과정이 비교적 두드러진다는 점, 작품의 내재적 요소—화자, 청자, 배경—를 분석하기에 적절하다는 점, 다양한 소재 활용과 학습자의 체험을 확장하는 교육적 방안 및 효과를 살피하기에 수월한 작품이라는 점 때문이다.

본론-3에서는 앞에서 제시한 설화모티프 시 교육을 기초로 수업 모형 및 교육 방안을 「견우의 노래」에 적용해 논해보았다. '설화모티프 시의 내용이해→수용한 설화 제시 및 전개과정 찾기→수용된 시와 설화모티프의 비교·분석→작가가 주목해서 변용한 부분 찾기→소재 활용의 다양성 체험'하는 교수·학습 지도안을 작성하고 실제 수업과 관련한 예를 제시했다.

위 내용을 바탕으로 요약하면, 본 논문은 설화모티프 시 교육 방법을 체계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연구자는 그 방법으로 창의력 확장을 위한 '소재체험하기'라는 내면화 중심 학습 방안을 제시하고자 했다. 이를 통해 상상력과 창의력을 신장시키고, 나아가 '문화적 가치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설화모티프 시 교육 방법을 고찰해보려고 했다.